

# (사)한국인도학회·인도연구소 HK+ 사업단 공동학술대회 및 (사)한국인도학회 제49차 정기학술대회

일시: 2020. 12. 12(토). 13:30-17:30

장소: ZOOM (홈페이지 Indology.co.kr 공지)

## 패널 1 | 도시화와 인도 사회의 변동

1. 고치(Kochi)의 거리풍경 읽기: 여성의 삶을 중심으로 (김영진)
2. 인도의 도시화와 주택정책 연구 (김미수)

## 패널 2 | 인도 여성·정치·법

3. 인디라 간디 아이콘과 젠더 (박금표)
4. 인도의 쇠고기 타부 문화의 정치화 (상연진)
5. 인도와 한국의 헌정사 비교 (강경선)

공동주최: (사)한국인도학회  인도 연구소

후원:  한국연구재단

정기학술대회 후 17:30부터 2020년도 한국인도학회 정기총회가 ZOOM으로 개최될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49<sup>th</sup> Regular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Indian Studies Inc.

and Joint Conference of the KSIS·  
Institute of Indian Studies HK+ Research Project

**Date: 13:30-17:30 Saturday, December 12, 2020**

**Venue: ZOOM** (Available on homepage [indology.co.kr](http://indology.co.kr))

## Panel 1 | **Urbanization and Changing Indian Society**

1. Reading the Street Landscapes of Kochi: focused on women's life (Kim, Young Jin)
2. Urbanization and Housing Policy in India (Kim, Misu)

## Panel 2 | **Studies of Indian Women, Politics, and Law**

3. Indira Gandhi's Icon and Gender (Park, Geum-Pyo)
4. Bovine politics in India (Sang, Yeonjin)
5.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al Walkways between India and Korea (Kang, Kyong-Son)

Organized by: Korean Society for Indian Studies Inc.

 Institute of Indian Studies

Sponsored by:

 **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he 2020 Regular Meeting for KSIS will follow the conference,  
beginning at 17:30



## 모시는 말씀

코로나다 뭐다 해서 계절의 변화조차도 알아차리기 어려운 겨울의 초입입니다. 사)한국인도학회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HK+사업단과 공동주최로 제49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벗게 되는 미래의 삶을 염두에 두기 보다는 오히려 마스크를 끼고 사는 지금의 삶을 수용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합니다. 지난 춘계 학술대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온라인 화상으로 학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도시화와 인도 사회의 변동” 및 “인도 정치·여성·법”을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학술대회를 위해 애쓰신 임원님들과 학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도와 인도학에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들이 참석하시는 즐거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3일

사)한국인도학회장 이거룡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HK+단장 김찬완

## Invitation

Geo-Lyong Lee, President, Korean Society for Indian Studies Inc.  
Chanwahn Kim, Director, Institute of Indian Studies HK+ Research Project  
HUFS

We are now facing winter in spite of not realizing the changes of season with the rise of Covid-19. The Korean Society for Indian Studies (Inc.) will be holding its 49th Regular Conference with the HK+ Project of the Institute of Ind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ather than look forward to our future without masks, it seems that we should accept the present, mask and all. This December, we will be holding another online conference as we did last July. We will be discussing “Urbanization and changes in Indian society”, as well as “Indian Politics, Women and Law”. We sincerely thank our members and officers, who have worked hard to hold this conference, and invite all interested in South Asia and Indology to this academic meeting.

3rd December, 2020

Lee, Geo-Lyong, President, Korean Society for Indian Studies (Inc.)  
Kim, Chanwahn, Director, HK+ Project, Institute of Indian Studies, HUFS



# 학술대회 일정

등록 13:30

개회식 13:45

진행: 구하원 (서울대)

개회사: 이거룡 한국인도학회장(전문대)

환영사: 김찬완 인도연구소 HK+사업단장 (한국외대)

축사: 소누 프리베디 스와미비베카난다 주한인도문화원장

패널 1> 도시화와 인도 사회의 변동 14:00-15:10

좌장: 정채성 (한국외대)

1 꼬치(Kochi)의 거리풍경 읽기: 여성의 삶을 중심으로

발표: 김영진 (델리대)

논평: 김경학 (전남대)

2 인도의 도시화와 주택정책 연구

발표: 김미수 (한국외대)

논평: 이순철 (부산외대)

휴식 15:10-15:30

패널 2> 인도 여성·정치·법 15:30-17:15

좌장: 백좌흠 (경상대)

3 인디라 간디 아이콘과 젠더

발표: 박금표 (한국외대)

논평: 이지은 (세종대)

4 인도의 쇠고기 타부 문화의 정치화

발표: 상연진 (한국외대)

논평: 이춘호 (한국외대)

5 인도와 한국의 헌정사 비교

발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논평: 고문현 (숭실대)

(사)한국인도학회 정기총회 및 공로패 수여 17:30

# Program

**Registration** 13:30

**Opening Session** 13:45

Moderator: Hawon Ku (SNU)

Opening Remarks: Geo-Lyong Lee, President, KSIS (Sun Moon Univ.)

Welcoming Remarks: Chanwahn Kim, Director of Institute of Indian Studies HK+ Research Project, (HUFS)

Congratulatory Remarks: Sonu Trivedi, Director, Swami Vivekananda Cultural Centre

**Panel 1 > Urbanization and Changing Indian Society** 14:00-15:10

Chair: Jeong, Chae-Sung (HUFS)

- 1 Reading the Street Landscapes of Kochi: focused on women's life

Speaker: Kim, Young Jin (Delhi Univ.)

Discussant: Kim, Kyung-Hak (Chonnam National Univ.)

- 2 Urbanization and Housing Policy in India

Speaker: Kim, Misu (HUFS)

Discussant: Lee, Soon-Cheul (BUFS)

**Break** 15:10-15:30

**Panel 2 > Studies of Indian Women, Politics, and Law** 15:30-17:15

Chair: Baek, Jwa-Heum (Gyeongsang National Univ.)

- 3 Indira Gandhi's Icon and Gender

Speaker: Park, Geum-Pyo (HUFS)

Discussant: Lee, Ji Eun (Sejong Univ.)

- 4 Bovine politics in India

Speaker: Sang, Yeonjin (HUFS)

Discussant: Lee, Choon-Ho (HUFS)

- 5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al Walkways between India and Korea

Speaker: Kang, Kyong-Son (Korea National Open Univ.)

Discussant: Koh, Moon-Hyun (Soongsil Univ.)

**General Meeting** 17:30

# 목차

## 패널 1) 도시화와 인도 사회의 변동

1. 꼬치(Kochi)의 거리풍경 읽기: 여성의 삶을 중심으로  
김영진 (벨리대) ..... 03
2. 인도의 도시화와 주택정책 연구  
김미수 (한구외대) ..... 21

## 패널 2) 인도 여성·정치·법

3. 인디라 간디 아이콘과 젠더  
박금표 (한국외대) ..... 31
4. 인도의 쇠고기 타부 문화의 정치화  
상연진 (한국외대) ..... 43
5. 인도와 한국의 헌정사 비교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 53

# Contents

## Panel 1) Urbanization and Changing Indian Society

1. Reading the Street Landscapes of Kochi: focused on women's life  
Kim, Young Jin (Delhi Univ.) ..... 03
2. Urbanization and Housing Policy in India  
Kim, Misu (HUFS) ..... 21

## Panel 2) Studies of Indian Women, Politics, and Law

3. Indira Gandhi's Icon and Gender  
Kim, Han-Sang (HUFS) ..... 31
4. Bovine politics in India  
Shin, Jin-Young (HUFS)/Choi, Jung-Ug (Konkuk Univ.) ..... 43
5.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al Walkways between India and  
Korea  
Kang, Kyong-Son (Korea National Open Univ.) ..... 53

패널 1> 도시화와 인도 사회의 변동

Urbanization and Changing  
Indian Society



# 코치(Kochi)의 거리풍경 읽기: 여성의 삶을 중심으로

## Reading the Street Landscapes of Kochi: focused on women's life

김영진  
델리대학교

### I. 들어가며

이 연구는 코치시(Kochi municipal corporation)의 거리풍경(street landscapes)을 기록하고 분석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여성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일상생활 공간을 기록하는 미시적 작업과, 사회적 상황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시적 관점을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다. 오늘날 문화의 공간적 측면을 배경이 아닌 주요 특징으로 다루는 인류학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행위는 공간에 위치하는(located in) 동시에 공간으로 구축된다(constructed of)는 개념이 새로운 의미를 얻고 있다(Low and Lawrence-Zuniga 2003, 1). 이러한 경향에 힘입어 본 연구는 거리공간에 초점을 맞춰 일상생활 공간이 품고 있는 사회문화적 측면을 밝히고자 한다.

코치시가 위치한 케랄라주는 ‘인도 속의 또 다른 인도’<sup>1)</sup>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도의 다른 주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 먼저 사회문화적 측면을 살펴보면 케랄라는 인도에서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보다 많은 유일한 주다. 또한 케랄라의 문맹률은 남녀 모두 10% 미만으로 인도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지역에 속한다. 아울러 인도의 다른 주들과 비교했을 때 식자층 비율에서 남녀 격차가 매우 적게 나타난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케랄라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실업률은 인도의 다른 주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게 나타난다(Government of India 2016. MSPI 2016: 71에서 재인용).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케랄라주는 공산당이 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드문 사례에 속한다. 1957년 인도 공산당(Communist Party of India)<sup>3)</sup>은 케랄라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주 총선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하였다. 최근 30년 동안에는 인도 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가 이끄는 통합민주전선(United Democratic Front)과 인도 공산당(마르크스주의)이 이끄는 좌파민주전선(Left Democratic Front)이 주 총선에서 번갈아가며 승리하고 있다. 참고로 2020년 현재 케랄라 주 정부는 좌파민주전선이 이끌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케랄라주는 인도에서 해외이주노동자의 송금액이 가장 많은 주

1) EBS, “세상의 모든 풍경-남인도 2부, 또 다른 인도”(2019. 4. 7. 방영); KBS, “걸어서 세계까지-인도 속의 또 다른 인도, 케랄라”(2019. 6. 22. 방영).

2) India Census, “Literacy in India,” <https://www.census2011.co.in/literacy.php> (2019. 5. 12. 접속)

3) 1964년 인도 공산당은 ‘인도 공산당’과 ‘인도 공산당(마르크스주의)’로 분리되었다.

로 유명하다(Prakash 1998: 3213; Zachariah and Rajan 2012: 60, 62).<sup>4)</sup> 해외송금에 대한 큰 의존도와 함께 깨랄라 경제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경제성장이 제조업의 발전 없이 3차 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Prakash et al. 2017: 31).

지금까지 깨랄라주가 갖는 독특한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깨랄라의 상업 수도”라고 불리는 (DCOK 2011: 9) 꼬치시의 거리풍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조사방법을 밝히면 조사자는 ‘공간에 적용한 참여관찰방법’으로서의 걷기(Walking)를 조사방법으로 채택한다(김영진 2015a, 134). 먼저 걷기라는 조사방법의 개발은 벤야민의 산책자 개념에 큰 빛을 지고 있다. 벤야민(2008, 155-156)은 대도시라는 공간에서 사람이 체험하는 주요 감각은 속도, 충격, 일시성 등이며, 이러한 공간이 산책자라는 새로운 주체를 낳았다고 말한다. 벤야민(2008, 9: 83; 155)은 산책자를 여행객과 비교하는데, 거창한 추억이나 역사적 전율에 몰두하는 여행객과 달리 산책자는 현재를 걸으며, 소리 없이 공간과 소통하며, 도시를 탐구한다. 즉 산책자는 일상적이고 감각적인 접촉 속에서 도시공간을 탐구하고 해석하는 자를 일컫는다.

산책자란 개념은 최근 도시공간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김영진 2015b; Kim 2018; Shortell 2017; Shortell and Brown 2014)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걷기는 인류학자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조사방법은 아니다. 르 브르통(2005, 90)은 걷는 경험이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인류학적 활동이라고 단언하는데, 그가 열거하고 있는 걷기의 성격은 참여관찰방법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르 브르통(2005, 21: 110)에 따르면 걷기는 세계를 느끼는 관능에로의 초대이며, 세계의 몸 혹은 살은 걷는 사람에게 어떤 메아리를 불러일으킨다. 더 나아가 그는 아래와 같이 도시가 보행자의 몸 안에 ‘스며’든다고 주장한다.

도시의 청각적 시각적 배경이 되어 소요하고 있는 사람을 동반해준다. 매순간 그의 피부는 변화무쌍한 외계의 기운을 감지 기록하여 물체나 공간과의 접촉에 반응한다. [...] 도시를 걷는 경험은 우리의 몸 전체의 반응을 촉발한다. [...] 도시는 이리하여 인간의 몸의 밖이 아니라 몸 안에 존재한다. 도시는 그의 시선에, 청각에, 그 밖의 다른 감각들에 스며든다(르 브르통 2005, 187).

본 연구의 경우 걷기는 거리공간을 직접 접촉하고 전유하는 동시에,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배움을 얻는 데 기여하였다. 현장조사는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에 걸쳐 수행되었다. 조사자는 이 기간 동안 여성이웃집단(Women's Neighbourhood Group)에 대한 연구(김영진 2019)를 위하여 꼬치시에 머물렀고, 연구대상인 여성이웃집단 회원들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거리에서 보냈다. 이 과정에서 조사자는 꼬치시의 거리풍경으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후 거리풍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덧붙여 조사자는 꼬치 메트로(Kochi Metro)가 건설되기 이전인 2013년 3월 11일부터 23일까지 에르나쿨람동(Ernakulam ward)에서 머물렀던 경험이 있음을 밝힌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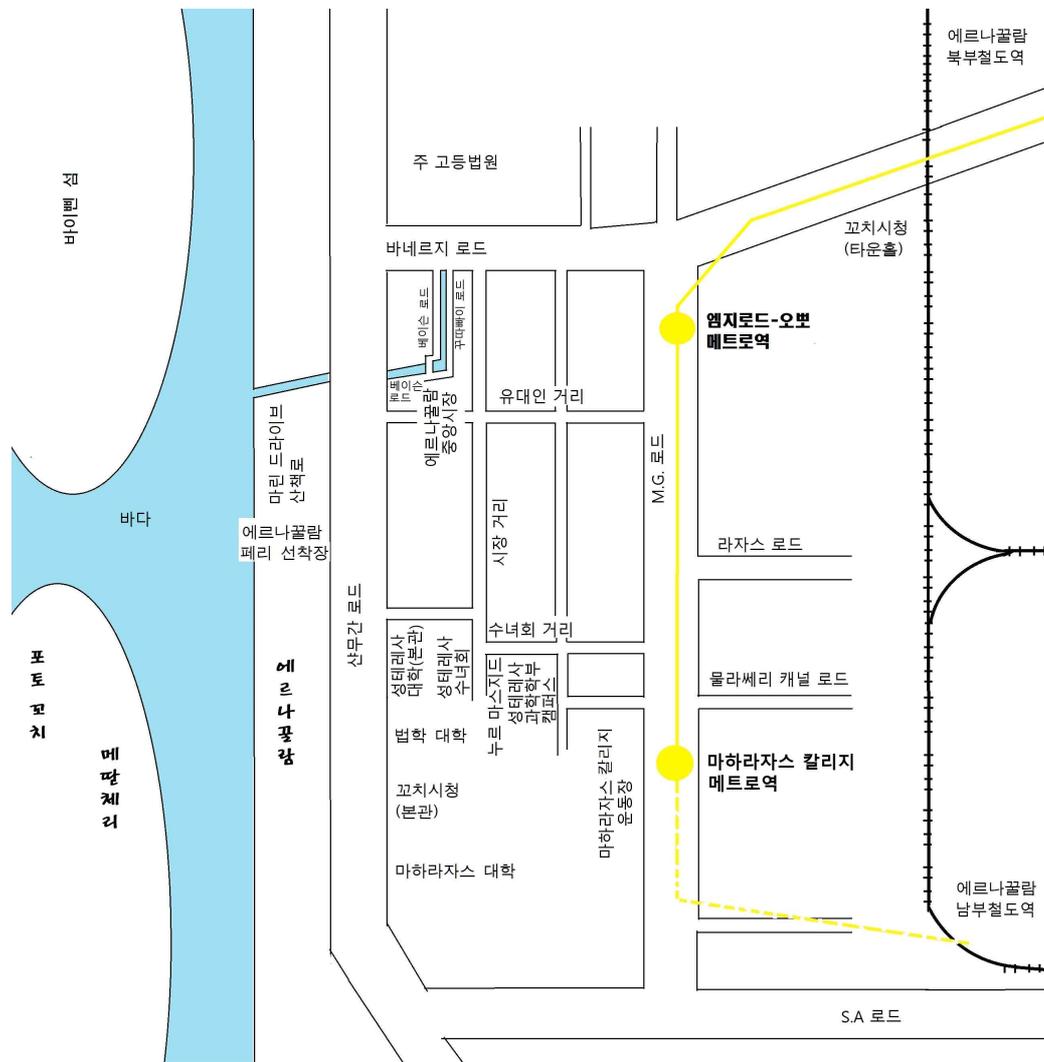
4) 1970년대 중반부터 깨랄라 노동자의 걸프만 지역으로의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었다(Prakash 1998, 3209; Zachariah et al. 2001, 66). 여기에는 1970년대의 오일 쇼크와 깨랄라의 높은 실업률이 큰 영향을 주었다(Gulati and Modi 1983, 10-11).

## II. 꼬치시의 거리풍경

### 1. 하루의 리듬 속에 드러나는 여성의 모습

현장조사 기간 동안 조사자는 성 테레사 대학(St. Teresa's College) 과학학부 캠퍼스 (Science Block) 안에 위치한 객실에 머물렀다. 따라서 조사자의 모든 여정은 이 대학의 과학학부 캠퍼스로부터 시작한다. 매일 새벽 5시경 캠퍼스 근처에 위치한 누르 마스지드(Noor Masjid)로부터 아잔(azan, 기도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이 울려 퍼진다. 30분쯤 지나면 캠퍼스 안의 어스름한 마당에 사람들의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들은 학교 안 성당으로 향하는 수녀들과 학생들이다. 이 기숙사의 아침식사 시간은 공식적으로 오전 7시 10분에 시작하지만, 실제로 식당 문을 여는 시간은 기도가 끝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7시 30분경 거리로 나르면 거리 곳곳에서 아스팔트에 내려앉은 까마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도시의 새벽 거리는 살벌하다. 까마귀들 곁에는 죽은 쥐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른 아침 쥐의 사체는 보통 가슴 부분에만 붉은 피가 번져 있을 뿐 비교적 온전하게 형체가 남아있다. 그러나 날이 다 밝은 후에는 까마귀들이 사체를 뜯어먹거나 서로 이리저리 채가는 모습을 더 흔하게 볼 수 있다. 때때로 사체가 피혁처럼 펼쳐져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림 1> 에르나쿨람동

성 테레사 대학은 여자대학이며 이 대학의 본관, 과학학부 캠퍼스, 경영학부 캠퍼스, 부설 중·고등학교, 부설 초등학교 등이 에르나쿨람동 곳곳에 흩어져 있다. 대학을 포함한 모든 학교는 일제히 오전 8시 30분에 수업을 시작하여 오후 4시 이전에 수업을 마친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는 에르나쿨람동 곳곳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여학생들이 무리지어 이동하는 모습과, 대학 옆 버스정류장에서 학생증을 목에 건 여학생들이 버스에서 우르르 내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90%가 넘는 여성식자층 비율과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하는 계랄라주에 걸맞은 거리풍경이다.

그런데 이빤과 꼬도트(Eapen and Kodoth 2003)는 계랄라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제시한다. 즉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을 높은 실업률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계랄라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실업률은 인도의 다른 주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다. 2015-16년 기준 15세 이상의 계랄라 여성의 실업률은 24.5%로 인도 여성의 평균 실업률인 5.5%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Government of India 2016. MSPI 2016, 71에서 재인용). 이빤과 꼬도트(Eapen and Kodoth 2003, 26; 229)는 그 원인을 성별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계랄라의 고용구조에서 찾는다. 더 나아가 이들은 여성들이

직업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교육기간을 연장하고, 이것이 깨랄라 여성의 '과잉교육'을 야기한다고 결론짓는다(Eapen and Kodoth 2003, 256).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비대칭적 분화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한 예로 에르나쿨람 중앙시장(Ernakulam Main Market)의 거리풍경을 들 수 있다. 이 시장은 '남성의 공간'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시장 안에서 여성의 모습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 성 테레사 대학의 과학학부 캠퍼스에서 나와 유대인 거리(Jew Street)를 향해, 시장 거리(Market Street)를 따라 걷다보면 에르나쿨람 중앙시장이 나온다. 여기서는 채소와 과일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유대인 거리에서부터 줄을 지어 정차하고 있고, 그 옆에서는 집꾼들이 분주하게 물건을 이고 나르는 모습을 매일 아침 볼 수 있다. 집꾼들은 공통적으로 푸른색 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러한 복장은 그들이 노조에 가입된 하역노동자(Headload Worker)임을 말해준다. 참고로 1978년에 제정된 하역노동자법(Kerala Headload Workers Act)에 따라 깨랄라의 특징지역에서는 노조에 등록된 노동자들만 하역 일을 맡을 수 있다(*The Times of India* 2018/06/20).

짐을 이고 가는 하역노동자들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 겹의 골목들이 나온다. 이곳에는 마늘, 허브, 라임 등의 다양한 채소 및 과일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몰려 있는데, 골목마다 취급하는 품목이 다르다. 따라서 새로운 골목에 들어설 때마다 골목의 색깔과 냄새가 바뀌곤 한다. 편의상 조사자는 이곳을 '채소 시장'이라고 부르곤 한다. 채소 시장을 나와 베이슨 로드(Basin Road)에 들어서면 바나나 또는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에르나쿨람 중앙시장에서는 상인뿐 아니라 손님 중에서도 여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참고로 말라얄람 통역을 도와주던 성 테레사 대학의 석사과정 여학생과 그의 엄마<sup>5)</sup>는, 조사자와 함께 이 시장을 방문했을 때, 조사자가 이곳을 아는 것을 신기하게 여겼으며 자신들은 이곳에 처음 와 본다고 말하였다.

조사자가 채소 시장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여성 상인은 골목 어귀에 앉아서 말린 생선을 파는 할머니였다. 한 점포의 바깥쪽 벽에 문지방처럼 턱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곳에 앉아서 말린 생선을 팔고 있었다. 할머니의 거칠고 울퉁불퉁한 맨발은 그의 삶이 얼마나 거친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한편 베이슨 로드에서는 해산물을 땅바닥에 진열해놓고 파는 여성 노점상 두 명을 보았다. 아울러 에르나쿨람 중앙시장 외곽, 즉 브로드웨이(Broadway)에 들어섰을 때는 채소를 파는 여성 노점상 세 명을 발견하였다. 베이슨 로드를 따라 걷다가 왼쪽, 즉 남동쪽으로 꺾어지면 공산품을 파는 점포들이 몰려 있는 브로드웨이가 나오는데, 이 거리의 점포들은 대략 오전 10시가 넘어야 문을 연다. 여성 노점상들은 매일 아침 셔터가 내려져 있는 점포 앞에서 채소를 팔다가, 점포가 문을 열기 전에 깨끗이 청소를 마치고 자리를 뜬다.

한편 이 거리는 여성 상인이 도매로 떼 온 채소를 간추리는 곳으로도 사용된다. 이곳에서 채소를 간추려 커다란 보자기에 싸고 있던 60대 할머니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이 할머니는 트리뿌니트라(Tripunithra, 꼬치시 외곽지역)까지 채소를 운반한 후 집집마다 다니며 채소를 파는 노점상이었다. 2년 전까지는 석공 보조로 일했지만 다리를 다친 후 더 이상 무거운 것을 들고 계단을 오를 수가 없어서 지금의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할머니는 이 일의 장점은 누구에게 고용될 필요가 없이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채소 시장과 그 부근에서 볼 수 있는 여성 상인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여성 고객들도 마찬가지로였다. 따라서 여자인 조사자는 시장 안을 걸을 때마다 조사자에게 물리는 남자들의 노골적인 눈초리를 감수해야만 했다. 한 번은 브로드웨이와 유대인 거리가 교차

5) 조사기간 동안 성 테레사 대학의 석사과정 여학생이 말라얄람 통역을 도와주었는데, 이 학생은 매번 조사현장에 엄마를 데리고 나왔다.

하는 지점에서 주변 상점들의 이름을 적고 있을 때였다. 손에 비닐봉지를 여러 개 들고 있는 붉은 수염을 길게 기른 한 할아버지가 조사자에게 말을 걸어왔다. 할아버지는 조사자에게 예전에는 이 거리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많은 수가 떠났다고 푸념하였다. 동쪽을 가리키며 시나고그(synagogue, 유대인 예배당)가 아직 남아있지만, 1층은 임대를 주어 상가로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씩씩한 표정을 지었다. 조사자가 '왜 이 시장에는 여성 상인이 많지 않나요?'라고 묻자 빈 박스와 플라스틱 등을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여자 두 명이 앉아있었다. 붉은 수염의 할아버지는 그들을 보며 "밖에서 활보하는 여자들은 저런 여자들뿐"이라고 대답했다. 잠시 후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있던 여자들은 자신의 덩치보다도 큰 포대 자루를 어깨 또는 머리에 이고 사라졌다.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분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식당 풍경을 들 수 있다. 거리의 식당들 중 많은 수가 벽 없이 거리를 향해 트여 있었다. 따라서 보행자도로에서 이들 식당 내부를 훑히게 들여다 볼 수 있었는데, 식당 안의 직원은 대부분 남자였다. 벽이나 어두운 창문 때문에 내부가 안 보이는 식당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식당에서는 드물지만 여자직원이 카운터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서빙을 하는 직원은 모두가 남자였다. 단 예외로 맥도날드, KFC 같은 다국적 기업의 프랜차이즈나 관공서 안에 위치한 매점에서는 서빙뿐 아니라 요리를 맡고 있는 여성을 볼 수 있었다.

반면 건설현장에서 단순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조사기간 동안 에르나꼴람 남부철도역<sup>6)</sup> 주변에서는 메트로 노선을 확장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 공사현장에는 보행자를 위한 통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자는 공사장 인부들과 섞여 공사현장을 가로지르곤 했는데, 여기서는 머리에 흙을 이고 나르는 여성노동자, 즉 여성 석공 보조를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긴 치마와 커다란 셔츠를 입고 있었다. 주택가 공사장에서도 비슷한 모습의 여성노동자를 볼 수 있었는데, 그들도 주로 흙이나 벽돌을 머리에 이고 나르는 단순노동을 담당하고 있었다. 남부철도역에 여동이 내리면 그 주변의 광활한 빈터에서 수없이 많은 작은 불빛들이 뿜어져 나왔다. 이는 건설노동자들의 임시 천막과 그 옆에 설치한 화덕에서 나오는 불빛들이었다. 불빛 주변에서는 아이들의 모습도 흔하게 목격되었다. 이러한 풍경은 메트로 공사에 종사하는 건설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다른 지역으로부터 온 이주노동자며, 그들 중 일부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상에서 거리풍경에 드러나는 성별에 따른 뚜렷한 노동분화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복권판매원<sup>7)</sup>처럼 남녀 구별 없이 거리 곳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직종도 있다. 복권판매는 깨랄라 주정부의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복권관리국이 허가한 사람만이 복권을 판매할 수 있다.<sup>8)</sup> 그러나 복권판매원들은 그 밑에 복권을 대신 팔아주는 하청 판매원을 두기도 한다. 복권판매원은 하청 판매원에게 1%의 수수료를 받는다. 복권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시장뿐 아니라 교차로, 관공소 등 도시 곳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으며 그들의 영업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손이나 가방에 복권을 넣고 거리를 배회하며 판매하는 사람, 복권을 진열한 나무판자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 상점에서 판매하는 사람, 거리에 복

6) 일명 환승역(Junction station).

7) 한 여성 복권판매원(60대, 시장 거리)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정식 허가를 받은 복권판매원도 있지만, 복권판매원으로부터 복권 일부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다. 복권판매원이 정부로부터 복권 한 장 당 받을 수 있는 판매수수료는 대략 5루pee인데, 복권위탁판매원의 경우에는 이 수수료의 일부를 복권판매원에게 떼어 줘야 한다.

8) <http://www.keralalotteries.com> (2019/05/10 접속)

권판매대를 설치한 노점상 등. 좌판의 형태도 철로 만든 것, 나무상자, 작은 플라스틱 판 등 각양각색이다.

여성 복권판매원의 경우에는 짜이(chai, 인도식 차) 좌판 근처에 복권판매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노점상의 형태가 많으며, 작은 손가방을 들고 관공서 마당을 서성이며 고객을 찾는 판매원도 있다. 도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의 복권판매원은 이 도시에서 복권판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매우 많음을 말해준다. 깨랄라는 제조업 부문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저조한 성장으로 유명하다. 제조업이 깨랄라 주내총생산(GS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71-72년에는 6.20%를, 2011-12년에는 10.17%를 기록하고 있다(Prakash et al. 2017, 30-31).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소자본으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복권판매업이 이 도시에서 성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복권판매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직업은 아니다. 시장 거리에 좌판을 설치하고 복권을 판매하는 한 여성 복권판매원(60대)은 자신이 하루에 판매하는 복권의 수는 대략 80개며, 복권 한 장당 평균 5루بية의 수익을 얻는다고 말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0일 동안의 수입은 대략 1만 루بية가 된다. 그런데 실제 수입은 이보다도 더 적어질 수 있다. 복권을 선불로 떼어오기 때문에 팔지 못한 복권으로 인한 손해는 모두 복권판매원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이 복권판매원은 셋집에서 살고 있으며 달마다 월세로 7,500루بية를 낸다고 한다. 이를 감안했을 때 복권판매가 좋은 수입을 보장하는 직업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시장 거리를 빠져나와 에르나쿨람에 위치한 두 개의 기차역, 즉 북부철도역<sup>9)</sup>과 남부철도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엠지 로드<sup>10)</sup>에 들어서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이 도로는 에르나쿨람동을 남북으로 길게 가로지르고 있는데, 2017년 10월부터 이 도로의 공중으로는 꼬치 메트로가 달리고 있다. 엠지 로드에서 메트로 고가(rail over bridge)의 건설은 2013년 후반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이 거리의 풍경에 전면적인 변화를 야기하였다. 2013년도 초반의 엠지 로드의 풍경을 회상하면 마하라자스 칼리지 운동장 아래쪽으로 대형 호텔들과 거대한 보석상들이 위치하였고, 그 위쪽으로는 작은 상점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다. 그러나 현재 엠지 로드에서는 거리 전체에서 대형 쇼핑몰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형 쇼핑몰들은 다음 두 특징들을 갖는다. 첫째, 대형 쇼핑몰들이 주로 취급하는 물품은 실크 사리와 보석류고, 이들 건물에 부착된 대형 광고판들은 이들의 주요 고객층이 예비신부임을 말해준다. 간단히 말해 엠지 로드는 일종의 혼수품 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쇼핑몰들은 기존의 건물들이 3층 이하인 것과 달리, 대부분 4층 이상의 층수를 갖는다. 또한 기존의 건물들이 작은 창문들이나 베란다를 갖는 것과 달리, 내부가 차단된 폐쇄적 건물양식을 보여준다. 즉 환기나 거리풍경 감상을 위해 쉽게 열 수 있는 작은 창문들 대신에 대형 쇼핑몰들의 벽면은 커다란 쇼윈도<sup>10)</sup>나 광고판으로 덮여 있다. 따라서 쇼핑몰과 거리를 연결해 주는 유일한 통로는 입구뿐인데, 입구 앞에는 경비원이 늘 지키고 서서 드나드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다. 그 앞을 통과하기만 하면 고객의 시야는 진열된 온갖 종류의 상품들에 의해 독점되며, 뒤를 따라다니며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거나 상품의 장점을 열거하는 달변

9) 일명 도심역(Town station).

10) 보드리야르(2004, 254-255)에 따르면 쇼윈도는 '가치형성의 사회적 과정이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게 되는 장소'며, 쇼윈도의 수준에서 성립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똑같은 사물 속에 내포된 '똑같은 기호체계와 가치의 위계코드를 읽거나 인식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 무대의 거대한 통유리는 이 무대가 내뿜는 기호들을 투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열려있지만, 보행자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닫혀있다. 한편 다채롭고 화려한 불빛 등은 보행자의 시선을 빼앗는 동시에 상품의 높은 가치를 주장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고 정당화한다.

의 점원들을 만나게 된다.

끝으로 거리에서의 여정은 보통 오후 7시 이전에 끝났음을 밝힌다. 과학학부 캠퍼스가 오후 7시경에 정문을 잠그기 때문이다. 정문이 닫히고 30분쯤 지나면 저녁식사를 위해 기숙사 식당이 문을 연다. 그리고 오후 9시경 정문 옆에 설치된 경비실의 불이 꺼진다. 오후 9시 이후에 학교로 돌아왔을 경우에는 경비실 창문을 두들겨 수위를 불러야 하고, 그러면 수위가 불을 켜고 밖으로 나와 문을 열어준다. 다음 절에서는 엠지 로드에서 증가하고 있는 쇼핑몰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 2. 혼수품 시장, 엠지 로드

엠지 로드에서 위치하는 대형 쇼핑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석류를 판매하는 대형 쇼핑몰을 열거하면 남쪽부터 비마(Bhima), 말라바르(Malabar), 깔리안(Kalyan), 알라빠뜨(Alapatt), 조스코(JOSCO), 춘가트(Chungath) 등이 있다. 다음으로 고급 사리(sari, 여성용 전통의상)를 취급하는 대형 쇼핑몰로는 밀라노(Milan), 자틴 디자이너스(Jatin Designers), 시마띠(Seematti), 깔라니께탄(Kalanikethan), 첸나이 실크스 등이 있다. 쇼핑몰은 아니지만 보통 1층과 2층을 함께 사용하는 유명 브랜드의 양복점 루이 필립(Louis Philipp), 레이몬드(Raymond), 반 휴센(Van Heusen) 등도 엠지 로드에서 위치한다. 이러한 건물들은 대부분 4층 이상이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층수를 갖는다.

또한 복합쇼핑몰인 센터 스퀘어(Centre Square)가 2013년 이 거리에 들어섰다. 이 건물은 지상 6층의 높이를 갖는다. 3층까지는 수입브랜드를 포함한 각종 상점들이, 4층에는 하이퍼마켓이, 5층에는 켄터키 치킨, 피자헛, 셉웨이 등의 다국적 체인점들이 모여 있는 푸드 코너가, 6층에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시네폴리스(Cinépolis)가 각각 위치한다. 현재 시네폴리스는 2017년 8월에 소방 안전점검을 통과하지 못해 영업을 중지된 상태다(*The New Indian Express* 2017/08/26). 그 밖에 엠지 로드에는 다양한 은행들이 위치한다. 꼬따(Kotak), 까루르 바이시야(Karur Vysya), 가톨릭 시리안(Catholic Syrian), 페더럴(Federal), 시티(Citi), 에스비아이(SBI), 뽀잡&신드(Punjab&Sind), 인더스인드(IndusInd), 유니온(Union)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은행을 이 거리에서 볼 수 있다.

대형 쇼핑몰들 중 정확한 건립연도를 알 수 있는 건물들로는 밀라노(2014)<sup>11)</sup>, 깔리안(2012)<sup>12)</sup>, 센터 스퀘어(2013)<sup>13)</sup>, 첸나이 실크스(2018), 깔라니께탄(2014)<sup>14)</sup> 등이 있다. 건물이름 옆 괄호 안의 숫자는 건물이 완공된 연도를 뜻한다. 그 밖에 말라바르(Malabar)는 7층 건물로 개축한 후 2017년 다시 문을 열었다.<sup>15)</sup> 또한 2018년에는 이비스(ibis) 국제호텔(2018)이 엠지 로드에서 등장했다. 이비스는 전 세계 64개국에 체인점을 두고 있는 아코르호텔스(AccorHotels)의 브랜드 이름이다(*The Hindu* 2018/01/12).

11) 밀라노는 2000년 수녀회 거리에서 개장하였는데, 2014년 그 위치를 엠지 로드로 옮겼다(*The Hindu* 2015/05/31).

12) 깔리안은 2012년 8월에 개장하였다(*The Economic Times* 2012/0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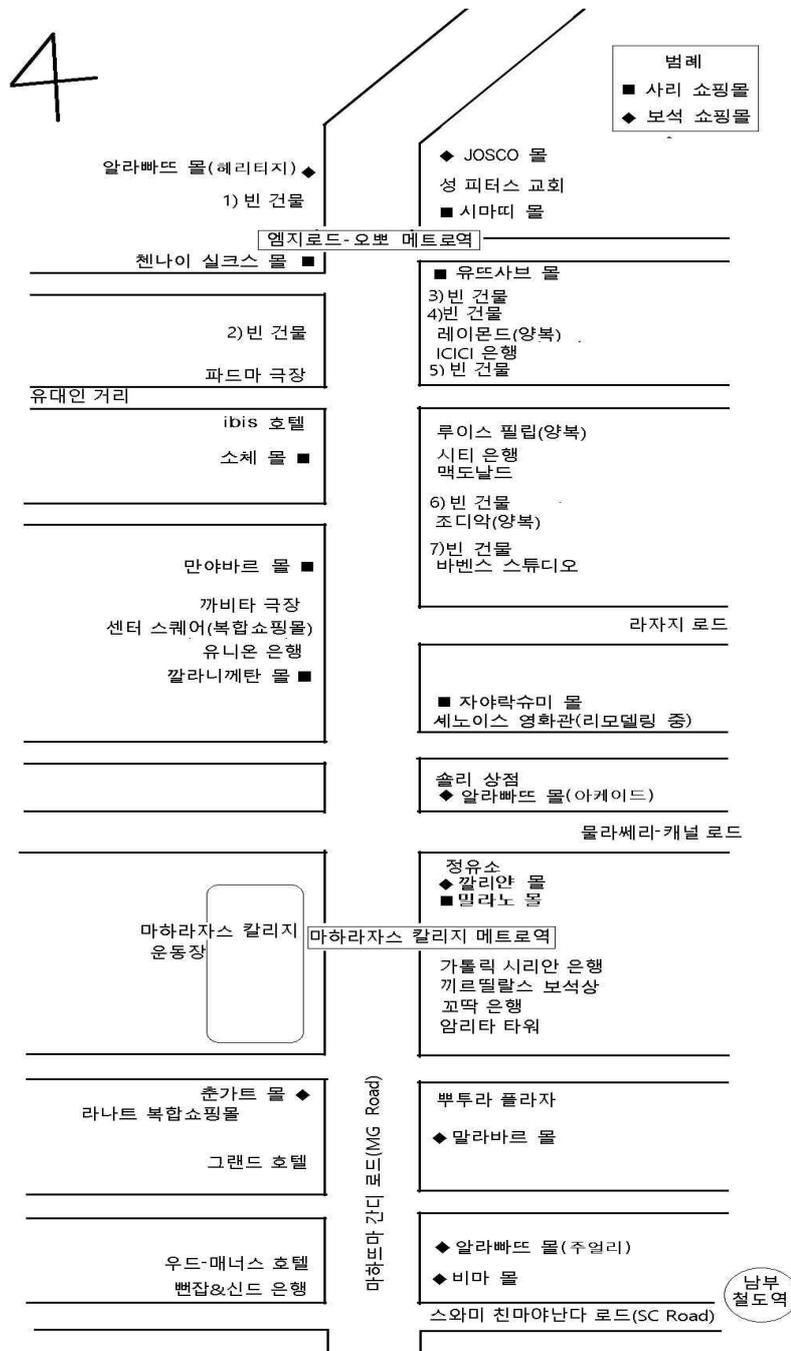
13) 이 물은 2013년 5월에 개장하였다([https://en.wikipedia.org/wiki/Centre\\_Square\\_Mall,\\_Kochi](https://en.wikipedia.org/wiki/Centre_Square_Mall,_Kochi), 2019/08/05 접속)

14)

<https://timescontent.com/syndication-photos/reprint/south-indian-cinema/351726/lakshmi-rai.html>

(2019/08/05 접속)

15) <http://cyberspaceandtime.com/> (2019/08/05 접속)



<그림 2> 엠지 로드 의 대형 쇼핑몰들

이처럼 엠지 로드 양쪽으로 실크 사리와 보석류를 판매하는 수많은 대형 쇼핑몰들이 늘어서 있으며, 쇼핑몰 사이에는 고급 양복점, 각종 은행 등이 위치한다. 대형 쇼핑몰의 경우 대부분이 인도 전역에 체인점을 갖고 있는 대형 브랜드의 영업장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건물에는 작은 창문 대신 거대한 쇼윈도나 커다란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사리 쇼핑몰의 벽면은 대규모 쇼윈도로, 보석 쇼핑몰의 벽면은 커다란 광고판으로 덮여 있다.

쇼핑몰들이 취급하는 품목은 주로 금, 다이아몬드, 실크 사리 등인데, 쇼핑몰의 커다란 광고판들은 그들의 주요 고객층이 예비신부임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사진 2>의 말라바르 벽면에

는 전속 광고모델인 까뜨리나 까뿌르(Katreena Kapoor, 국민 여배우)와 마누시 칠라르 (Manushi Chhillar, 2017년 미스월드)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 마누시의 사진 아래에는 ‘인도 축하연(Celebration India)’, 얼굴 옆에는 ‘인도 신부(Bride India)’라는 영어가 각각 적혀 있다. <사진 3>의 밀라노 광고판에서는 ‘밀라노 신부(Milan Bride)’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사진 4>는 마하라자스 칼리지 운동장과 꼬딱 은행(1층) 사이의 거리풍경을 보여주는데, 도로 중앙에 서 있는 고가의 기둥에는 춘가트(Chungath) 보석 쇼핑몰의 광고판이 부착되어 있다. 이 광고판은 ‘신부의 길(Bride’s Way)’이라는 문구와 함께, 장신구로 화려하게 꾸민 신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사진 2> 말라바르 보석 쇼핑몰  
(2019/02/22, 11:50)



<사진 3> 밀라노 사리 쇼핑몰  
(2019/02/22, 12:10)



<사진 4> 춘가트 보석 쇼핑몰 광고판  
(2019/02/22, 12:04)



<사진 5> 골드론 광고판  
(2019/ 02/06)

또한 깔라니께탄 쇼핑몰 입구에는 ‘혼수품 전시회 2019(Bridal Collection 2019)’라는 굵은 글씨 아래에 결혼식을 ‘서사시적인 순간(epic moment)’으로 만들라는 문장이 아래와 같이 적혀 있었다.

2019년 가장 다양한 웨딩컬렉션이 여기에 있습니다. 칸지바람스(kanjivarams, 실크 사리), 디자이너 사리(designer sarees), 가그라스(ghagras, 긴 주름치마), 살와스(salwars, 바지), 의상소품 및 서양 옷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결혼식을 서사시적인 순간으로 만드십시오. 지금 깔라니께탄을 방문하십시오!

광고판 속 문구, 광고모델의 치장 등은 높은 사회지위를 의미하는 소비목록, 즉 이 사회의 표준 꾸러미(standard package)<sup>16)</sup>를 보여준다. 조사자는 ‘신부의 길’ ‘인도 신부’ ‘밀라노 신부’ ‘혼수품 전용층(Exclusive Wedding Floor)’ 등의 문구와 화려한 신부의 모습을 통해 결혼식에서 신부가 갖춰야 할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모범사례를 습득한다. 조사자는 께랄라에서 실제 결혼식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조사자는 무심결에 광고판에서 본 신부의 모습과 실제 식장의 신부 모습을 비교하고 있었다. 쇼윈도와 광고판의 거대한 크기 때문에 거리를 걸을 때 조사자의 시야는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고, 따라서 거리에서 조사자는 어쩔 수 없이 인도 신부가 갖춰야 할 다양한 장신구의 목록을 배우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엠지 로드의 풍경은 이 거리에서 건물의 대형화 및 고층화, 밀폐된 건물양식의 유행 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쇼핑몰의 증가 및 대형화는 이 도시에서 소비력이 급증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풍경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께랄라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참금 인플레이션과 해외 이주노동자의 송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셀라와 오셀라(Osella and Osella 2000, 100-101)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께랄라에서 지참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990년대 말에는 지참금이 신부가 여성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자산의 양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였다.<sup>17)</sup> 한편 지참금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께랄라에서는 결혼하는 딸에게 가족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든, 지참금을 주는 경우든 그 몫의 많은 부분을 금으로 주는 경향이 있다(Kodoth 2008, 272). 따라서 오남(Onam)<sup>18)</sup>부터 겨울까지 이어지는 께랄라의 결혼 성수기에 금 소비가 크게 증가한다(*The Economic Times* 2019/08/29).

인도에서 금은 거의 현금과 같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종류의 소비재에 속한다. 금은 빠르게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즉석에서 그 가치가 쉽게 측정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금은 부의 전시를 용이하게 한다. 께랄라에서 결혼식은 부의 증명을 통해 가족의 위신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때 전시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지참금 중 큰

16) 데이비드 리즈먼(David Riesman)은 『무엇을 위한 풍요(*Abundance for What?*)』에서 미국 중산층을 상징하는 소비목록을 ‘표준 꾸러미’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17) 박정석(2007, 89)의 연구에서 한 정보제공자는 께랄라에서 시집보내는 데 드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께랄라에서 보통 수준으로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는 약 50만 루pee가 필요하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30-40만 루pee면 시집을 보낼 수 있었다. 께랄라에서 결혼비용 중 큰 몫이 신랑측에게 주는 현금예단과 신부의 금장신구를 사는 데 쓰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Osella and Osella 2000, 97), 결혼비용의 증가를 통해 지참금의 증가도 짐작할 수 있다.

18) 8월이나 9월에 시작하여 12일 또는 13일 동안 기념되는 축제.

비율을 금 장신구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Kodoth 2008, 274; Osella and Osella 2000, 97; 101; 151). 현금이나 다른 물건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금은 결혼식에서 사람들 눈앞에 전시되며 하객들은 신부측과 신랑측이 교환한 금의 양을 거의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Osella and Osella 2000, 134).

이처럼 금은 지참금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셀라와 오셀라(Osella and Osella 2000, 1)는 1970년대 케랄라에서 한 부유한 집안 출신의 신부가 금팔찌를 포함한 금 장신구 총 200그램<sup>19)</sup>을 몸에 두르고 시집간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참금의 양이 종종 금 808그램까지 치솟기도 하는 1990년대에는 200그램의 지참금은 평범한 수준에 속하지만, 1970년대에는 보기 드물게 많은 양이었다고 덧붙인다. 이를 염두에 두었을 때 엠지 로드에서 보석 쇼핑물의 수가 증가하고 대형화되는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케랄라에서 지참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짜차리아 외(Zachariah et al. 2000, 6)는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케랄라의 ‘음울한 시나리오’에서 가장 역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요인으로 해외이주노동자를 꼽는다. 해외이주노동자가 케랄라로 보내는 송금의 양이 케랄라 주내순생산(Net State Domestic Product)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그 영향력을 알 수 있다. 해외에서 케랄라로 보낸 송금의 양은 1980-81년에 주내순생산의 8.9%를 차지하였으며 더 나아가 1992-93년에는 주내순생산의 22.58%까지 증가하였는데, 여기에는 1991년 인도 중앙정부가 경제자유화 정책의 하나로 실시한 루삐의 가치절하도 크게 영향을 주었다(Prakash et al. 2017, 30). 이러한 해외이주노동자의 송금액 증가가 케랄라의 지참금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Kodoth 2008, 274).

오셀라와 오셀라(Osella and Osella 2000)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해외이주노동자의 송금, 지참금 상승, 사회이동 전략으로서의 양혼(仰婚, hypergamy) 사이에 존재하는 역학관계를 설명한다. 이자바(Ezhava 또는 Izhava)는 전통적으로 수드라 또는 불가촉천민으로 분류되는 카스트 공동체를 일컫는다. 이자바는 1968년에 케랄라 인구의 22%를 차지하였다.<sup>20)</sup> 오늘날에도 케랄라에서 가장 큰 힌두 공동체로 꼽히는데, 선거 때마다 신문기사에 표발(vote bank)이란 단어와 이 카스트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린다(*India Today* 2016/05/10; *The Economic Times* 2015/10/10).<sup>21)</sup> 또한 이자바는 해외이주노동자의 송금에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해외이주노동자가 케랄라로 보내는 송금에서 각 종교 공동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무슬림이 47%, 이자바가 13%, 시리아계 기독교인이 13%를 차지하고 있다(Zachariah et al. 2000, 27).

해외이주노동을 통해 자금력을 갖게 된 이자바는 지위상승을 위해 자띠(jati)나 거주지 밖에서 신랑감을 구하는 ‘낯선 자-결혼(stranger-marriage)’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양혼을 통해 사회이동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전략과 맞물려 있다(Osella and Osella 2000, 92; 114-115). 서로의 생활수준을 잘 모르는 낯선자와의 결혼에서 신부측은 부의 과시를 통해 가족의 지위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하위 카스트의 과시소비(conspicuous consumption)를 부추기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자바의 결혼의례는 상위 카스트인 나야르

19) 2019년 8월 기준 금 200그램의 시세는 약 1,160만 원이며, 808그램은 약 4,700만 원이다.

20) 1968년 기준 케랄라 힌두교 공동체의 인구비율을 보면 남부디리 및 따밀 브라만은 전체 인구의 2%를, 끄샤뜨리아-나야르는 2%를, 농경에 종사하는 수드라-나야르는 14%를, ‘야자수 따는 사람들’로 불리기도 하는 이자바족은 2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비힌두교 공동체로 기독교가 21%, 무슬림이 19%를 차지한다. 이들은 20세기 초반까지도 서로 다른 결혼관습 및 상속제도를 각각 따르고 있었다(Franke and Chasin 1994, 72).

21) 이자바의 과반수 이상이 2011년 총선에서 좌파민주전선을 지지하였다(*Firstpost* 2016/02/10).

(Nayar)의 관습을 모방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이자바의 결혼의례를 이전보다 화려하게 만들고 있다(Osella and Osella 2000, 105).

다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의 사회이동 윤리(mobility ethic)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발견한다. 즉 이들은 사촌촌, 일처다부제 같은 이자바의 옛 결혼 관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며, 지참금을 줘야 하는 낮은 자와의 결혼동맹 게임에 적어도 참여하는 척이라도 하기 위하여 점점 더 빚을 늘리며, 아이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Osella and Osella 2000, 116).

그런데 결혼의례는 신부가족에게 재정적 위기를 야기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결혼 이후의 여성의 삶도 위협할 수 있다. 오늘날 깨랄라에서 유망한 신랑감들은 신부가 상속분이나 지참금을 땅으로 가져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Osella and Osella 2000, 101). 따라서 신부 가족은 땅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얻어 현금이나, 그와 같은 양의 금으로 지참금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갓 시집온 새댁이 동산의 형태로 가져온 재산을 계속 자신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은 쉽지 않다. 여성은 결혼 후 지참금 전체에 대한 권리를 잃기 쉬운데, 그들의 지참금은 시누이의 지참금, 시동생의 취업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재산을 탕진한 여성은 엄마-딸 상속(mother-daughter inheritance) 관습을 이어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깨랄라에서는 신부의 금 중 많은 양이 보통 결혼 후 1년 안에 팔리거나 담보로 잡힌다고 한다(Osella and Osella 2000, 97).

인도에서는 금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하는 제도, 즉 '골드론(Gold Loan)'이 널리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은행과 금융기관이 일정 한도 내에서 금의 70%에 해당하는 액수를 대여해주고 있는데, 대출금의 이자율은 대략 10-12% 정도다. 메트로 전차 안에서도 <사진 5>처럼 골드론 광고포스터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주정부 산하기업, 즉 깨랄라주 금융회사(Kerala State Financial Enterprises Ltd.)는 최대 2백 5십만 루피까지 골드론을 제공하고 있다. 골드론을 사용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엠지 로드에서 복권을 판매하고 있는 한 여성(60대)은 복권진열대를 구입하기 위해 금장신구를 맡기고 3천 루피의 골드론을 얻었다고 한다. 그는 석공 보조로 일하다가 다리를 다쳐 4개월 전부터 복권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 골드론을 썼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골드론의 장점은 돈을 신속하게 대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처럼 빠른 속도는 금을 잃는 속도에도 기여할 것이다. 깨랄라에서 가장 큰 세 골드론 회사들의 금 보유량의 총량은 2014년 약 195톤에서 2016년 약 263톤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벨기에, 싱가포르, 또는 스웨덴의 금 보유량보다도 많은 양이다(Indiatimes 2016/12/27).

### Ⅲ. 나가며

꼬치시의 거리풍경에 나타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꼬치시의 거리풍경은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별에 따른 분화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꼬치시에서는 열린 공간에서 일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다. 특히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을 보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부나 석공 보조처럼 강도가 높은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은 비교적 쉽게 볼 수 있었다. 둘째, 혼수품 시장인 엠지 로드에서 대규모의 쇼윈도 및 광고판을 갖춘 대형 쇼핑몰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양식의 건물들은 이 사회에서 소비력이

급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풍경은 케랄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성의 높은 실업률, 지참금 인플레이션, 해외이주노동자의 송금 등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케랄라 여성은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을 보여준다. 이는 케랄라 여성의 생존에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한편 케랄라 사회에서 해외이주노동을 통해 경제력을 확보한 낮은 카스트의 사람들이 사회이동을 위한 전략으로서 선택하는 양혼은, ‘사나운 양혼 결혼시장’과 ‘환상적으로 높으며 계속 치솟는 지참금’을 야기하고 있다(Osella and Osella 2000, 97). 부의 과시를 매개로 하는 양혼은 금 장신구를 비롯한 과시소비와 지참금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신부측 가족의 고통과 부담으로 이어지기 쉽다(Billig 1992, 198).

생계를 아버지나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케랄라 여성은 가족의 위신을 위해 위험한 외부인과의 결혼을 감수해야할 뿐 아니라, 결혼 후에는 새 가족의 복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간단히 말해 케랄라 사회에서 여성은 가족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는 약자의 위치에 있다. 오늘날 케랄라 사회에서 나타나는 ‘지참금 살인(dowry death)’의 잔혹성과 ‘지참금 관련 범죄’의 급증은 케랄라 여성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9년 3월에 지참금 살인을 당한 투샤라(Thushara, 27세)는 최근 케랄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참금 살인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결혼 당시 투샤라의 친정 이 투샤라의 남편에게 주기로 약속한 20만 루피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샤라는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는데, 사망할 당시 투샤라의 몸무게는 20kg이었다(Deccan Chronicle 2019/12/22; India Today 2019/03/30). 케랄라여성위원회(Kerala Women's Commission)의 일원인 타라(Thara)는 이러한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과시적인 결혼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케랄라여성위원회가 2015년에 통합민주전선이 이끄는 주 정부에 결혼 비용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였으나 무시되었다고 밝힌다(Deccan Chronicle 2019/12/22). 한편 지참금 살인뿐 아니라 지참금 관련 범죄도 케랄라 여성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을 말해준다. 지참금 관련 범죄란 지참금 문제로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범죄를 뜻하는데, 1990년 케랄라에서 지참금 관련 범죄는 186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3,283건으로 증가하였다(Kumari 2009, 22).

요컨대 케랄라는 여러 종류의 모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다. 제조업의 발전 없이 해외이주노동자의 송금에 의존하는 경제활동, 교육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타나는 여성의 실업률, 과시소비를 부추기는 양혼의 유행 등이 서로 얽히고설켜 서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여성의 위기는 점점 더 고조될 수밖에 없다. 꼬치시의 거리 풍경에 나타나는 특징들, 즉 여성노동자의 낮은 밀도, 혼수품 시장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쇼핑물의 증가 및 대형화는 케랄라 여성이 처한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꼬치시의 거리풍경은 오늘날 여성이 처한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끝으로 이 논문의 한계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거리에서 고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걸인, 쇼핑물의 매니저나 고객 등의 목소리와 해석을 직접 들려주지 못하였다. 둘째, 꼬치 사람들의 소비행위 및 결혼관습에 대한 연구를 찾지 못하여 케랄라에 대한 문헌들에 의존하여 분석작업을 진행하였다. 즉 꼬치시에 위치한 쇼핑물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 그들이 돈을 구입하는 데 쓰는 금액, 그 금액이 총 결혼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대한 조사가 결여되어 있음을 밝힌다. 추후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책과 논문

- 김영진 2015a. “거리공간 연구를 위한 조사방법으로서의 걷기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제48집 2호, 125-151.
- 김영진 2015b. 『델리의 도시공간을 걸으며: 거리풍경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서울: 민속원.
- 김영진 2019. “가난한 여성을 위한 조직인 ‘여성이웃집단’의 성격변화와 그 의미: 케랄라(Kerala)주 꼬치(Kochi)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제52집 3호, 81-125.
- 르 브르통, 다비드 지음, 김화영 옮김 2005. 『걷기 예찬』. 서울: 현대문학(Le Breton, David, 2000, *Eloge de la Marche*).
- 박정석 2007. “케랄라의 귀환이주자: 이주과정과 소비행위를 중심으로”, 『인도연구』 제12권 1호, 61-99.
- 벤야민, 발터 지음, 조형준 옮김 2008. 『도시의 산책자』. 서울: 새물결(Benjamin, Walter, 1927, *Das Passagen-Werk*).
- 보드리야르, 장 지음, 이상률 옮김 2004.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서울: 문예출판사 (Baudrillard, Jean, 1970,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 Billig, Michael S. 1992. “The marriage Squeeze and Rise of Groomprice in India's Kerala State”,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Vol. 23, No. 2, 197-216.
- Eapen, Mridul and Praveena Kodoth 2003. “Family Structure, Women's Education and Work: Re-examining the High Status of Women in Kerala”, In Mukhopadhyay, Swapna and Ratna M. Sudarshan, eds., *Tracking Gender Equity under Economic Reforms: Continuity and Change in South Asia*, New Delhi: Kali for Women, 227-267.
- Franke, Richard W. and Barbara H. Chasin 1994. *Kerala: Radical Reform as Development in an Indian State*. Monroe: Subterranean Company.
- Gulati, S and A. Modi 1983. “Remittance of Indian Migration to the Middle East: An Assessm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Migration from Kerala”, Work Paper No. 182, Thiruvananthapuram: Centre for Development Studies.
- Kim, Young-Jin 2018. “High-rise Buildings and Social Inequality: Focusing on the Street Quarter of Mapo-ro in Seoul”, *Urbanities* 8(2), 3-22.
- Kumari, Anitha 2009. “Crimes against Women in Kerala: What Do the Trends Reveal?”, *The Journal of Family Welfare* 55(1), 18-30.
- Kodoth, Praveena 2008. “Gender, Caste and Matchmaking in Kerala: A Rationale for Dowry”, *Development and Change* 39(2), 263-283.
- Low, Setha and Denise Lawrence-Zuniga 2003. “Locating Culture”, In Low, Setha and Denise Lawrence-Zuniga, eds., *The Anthropology of Space and Place: Locating Culture*, Malden: Blackwell Publishing, 1-48.

- Osella, Filippo and Caroline Osella 2000. *Social Mobility in Kerala: Modernity and Identity in Conflict*. London: Pluto Press.
- Prakash, B. A. 1998. "Gulf Migration and Its Economic Impact: The Kerala Experienc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33(50), 3209-3213.
- Prakash, J. Vineesh, Dinesh Kumar Nauriyal and A. P. Noushad 2017. "Migration and Remittances in Kerala", *Journal of Regional Development and Planning* 6(2), 25-40.
- Riesman, David 1993. *Abundance for What?*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Shortell, Timothy 2017. "Everyday Mobility: Encountering Difference", In Pardo, I. and G. B. Prato, eds., *The Palgrave Handbook of Urban Ethnograph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Shortell, Timothy and Evrick Brown, eds., 2014. *Walking in the European City: Quotidian Mobility and Urban Ethnography*. Surrey: Ashgate.
- Zachariah, K. C., E. T. Mathew and S. I. Rajan 2000. "Social, Economic and Demographic Consequences of Migration on Kerala", Workpaper No. 303, Thiruvananthapuram: Centre for Development Studies.
- Zachariah, K. C., E. T. Mathew and S. I. Rajan 2001. "Impact of Migration on Kerala's Economy and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39(1), 63-87.
- Zachariah, K. C. and S. I. Rajan 2012. "Inflection in Kerala's Gulf Connection: Report on Kerala Migration Survey 2011", Working Paper 450, Thiruvananthapuram: Non-Resident Keralite Affairs.

## 2. 신문

- Deccan Chronicle* 2019/12/22. "Dowry deaths in Kerala down, but cruelty up".
- Firstpost* 2016/02/10. "Guess Who's after the Hindu Vote in Kerala? (Hint: It's not BJP)".
- Indiatimes* 2016/12/27. "These 3Kerala Companies have more Gold than All of Australia!".
- India Today* 2016/05/10. "BJP Falls in Its Own Hindutva Trap in Kerala".
- India Today* 2019/03/30. "Kerala woman starved to death for dowry, weighed Just 20 kg at death".
- The Economic Times* 2012/08/18. "Kalyan Jewellers, Leading Jewellery Group from Kerala, Sets a Turnover Target of Rs 16,000 Crore".
- The Economic Times* 2015/10/10. "VS Achuthanandan to Lead LDF in Kerala Assembly Elections".
- The Economic Times* 2019/08/29. "Kerala Jewellers Expect Gold Sales to Go up by 25-30 per cent".
- The Hindu* 2015/05/31. "Material Girl".

*The Hindu* 2018/01/12. “InterGlove Hotels Debuts in Kerala with Ibis Kochi Property”.

*The New Indian Express* 2017/08/26. “NOC Issue: Cinepolis at Kochi's Centre Square Mall to Remain Closed This Weekend”.

*The Times of India* 2018/06/20. “Kerala HC: Headload Workers Can't 'Carry' Mobiles”.

### 3. 정부간행자료 및 웹사이트

DCOK (Directorate of Census Operations of Kerala) 2011. *District Census Handbook: Ernakulam*.

Government of India 2016. *Fifth Annual Employment-Unemployment Survey (2015-16)* Vol. 1.

MSPI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2016. *Women and Men in India-2016*.

<http://cyberspaceandtime.com/> (2019/08/05 접속)

<http://www.keralalotteries.com> (2019/05/10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Centre\\_Square\\_Mall,\\_Kochi](https://en.wikipedia.org/wiki/Centre_Square_Mall,_Kochi) (2019/08/05 접속)

<https://timescontent.com/syndication-photos/reprint/south-indian-cinema/351726/lakshmi-rai.html> (2019/08/05 접속)

<https://www.census2011.co.in/literacy.php> (2019/05/12 접속)



# Urbanization and Inclusive Housing Policy in India

Misu K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I. Introduction

Urbanization has promoted economic growth and made our daily lives more convenient with well-developed infrastructure while also leading to inequality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the expansion of the informal sector in urban areas (United Nation 2020). The dark side of urbanization has become more prominent during the pandemic we are facing now. In order to control the rapid spread of COVID-19, many countries, including India, announced lockdowns. The media broadcast pictures of migrant workers rushing onto trains or buses to get to back their hometowns in rural areas. In this context, a question was raised. The demand for informal or casual workers has increased in India with high economic growth, which in turn has led to an increase in migration from rural to urban areas. However, when the lockdown started, migrant workers went back to their hometowns. It could be because they did not have 'adequate housing' in the urban area.

Living in adequate housing has been regarded as a basic human right as well as a basic need because it directly affects the quality of rights and health<sup>22</sup>). According to the UN, *adequate housing* is defined based on four criteria—Habitability, Accessibility to Services, Housing Affordability, and Security of Tenure. The importance of adequate housing has become even more pronounced in the time of the pandemic. Socially weak workers, such as casual workers and manual laborers, lost their jobs due to lockdown and the resulting economic slowdown, and some of them cannot afford to pay their rent or mortgage. In addition, living in a crowded or congested house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transmitting communicable diseases, especially when people are required to stay at home. In this context, inclusive housing policy is crucial for a country in many ways, such as social st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it is timely to investigate India's urbanization and housing policy. This

---

22) Please see [https://www.ohchr.org/\\_layouts/15/WopiFrame.aspx?sourcedoc=/Documents/Issues/Urbanization/Adequate%20Housing%20and%20Urbanization.doc&action=default&DefaultItemOpen=1](https://www.ohchr.org/_layouts/15/WopiFrame.aspx?sourcedoc=/Documents/Issues/Urbanization/Adequate%20Housing%20and%20Urbanization.doc&action=default&DefaultItemOpen=1) and [http://mospi.nic.in/sites/default/files/Statistical\\_year\\_book\\_india\\_chapters/HOUSING%20-%20WRITEUP.pdf](http://mospi.nic.in/sites/default/files/Statistical_year_book_india_chapters/HOUSING%20-%20WRITEUP.pdf)

study has five sections. The motivation of this study and research question is addressed in the introduction. To fill the gap, existing literature related to this topic is reviewed in the second section. The progress of urbanization and the housing situation in urban areas is discussed in the third section, while India's urban housing policy is analyzed in the fourth section. The last section concludes the study with suggestions.

## II.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Urbanization and housing issue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rural-urban migration and urban housing prices (Chen et al, 2011) and the relations between urbanization and housing markets (van Doorn L et al 2019), have been widely discussed.

In the case of India, urbanization and economic growth or economic reforms were investigated in Colmer (2016) and Sarkar (2019). Moreover, Tumble (2016), investigated India's urbanization from 1870 to 2020 based on demographic transition. More specifically, the situation of the urban housing poor was examined in the study by D'Sourza (2019) by analyzing government policies. Kundu and Kumar (2017) discussed credit subsidy in the recent Pradhan Mantri Awas Yojana.

## III. Urbanization and housing shortage in India

*Urban* in India is defined as follows according to India's Census 2011: first, a minimum population of 5,000; second, a density of population of at least 400 persons per sq. km.; and third, at least 75 percent of males working in a non-agricultural sector<sup>23)24)</sup>.

The pace of India's urbanization has been relatively slow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s shown in Table 1. As of 2019, India's urbanization rate was 34.5%, which stands for the share of the population living in an urban area. This number is lower than the world average, 55.7%. This figure also lags behind other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60.3%), Japan (91.7%), or South Korea (81.4%), and the emerging countries Vietnam (36.6%) and Indonesia (56%).

---

23) The definition of *urban* differs across the countries.

Please see [https://unstats.un.org/unsd/demographic/sconcerns/densurb/Defintion\\_of%20Urban.pdf](https://unstats.un.org/unsd/demographic/sconcerns/densurb/Defintion_of%20Urban.pdf)

24) Please see [https://censusindia.gov.in/2011-prov-results/paper2/data\\_files/India2/1.%20Data%20Highlight.pdf](https://censusindia.gov.in/2011-prov-results/paper2/data_files/India2/1.%20Data%20Highlight.pdf)

&lt;Table 1. Urbanization rate of selected countries&gt;

Country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9
China	16.2	17.4	19.4	26.4	35.9	49.2	60.3
India	17.9	19.8	23.1	25.5	27.7	30.9	34.5
Indonesia	14.6	17.1	22.1	30.6	42.0	49.9	56.0
Japan	63.3	71.9	76.2	77.3	78.6	90.8	91.7
South Korea	27.7	40.7	56.7	73.8	79.6	81.9	81.4
United States	70.0	73.6	73.7	75.3	79.1	80.8	82.5
Vietnam	14.7	18.3	19.2	20.3	24.4	30.4	36.6
World	33.6	36.6	39.3	43	46.7	51.6	55.7

(Note: *Urbanization rate* is defined as the share of population living in an urban area.)  
(Source: World Bank)

India's slow urbanization was due to the inadequate attention and socialistic industrial policies of the Indian government as studied by Sridhar (2016) as well as Mills and Becker (1986). Sridhar (2016) argued that India's slow urbanization resulted from the Indian government being pessimistic about urbanization and the possibility of rural-to-urban migration increasing unemployment. Moreover, Mills and Becker (1986) also pointed out that government intervention in industries restricted the establishment of companies and factories in urban areas, which in turn led to slow urbanization. In another perspective, the strict criteria of India's urban areas also contributed to slow urbanization. Tumbe (2016) argued that the urbanization rate based on the 2011 census could increase the rate to 47% from 31% if rural areas with a population exceeding 5,000 were classified as urban areas.

In the case of developing countries like India, urbanization is ongoing, which in turn leads to the problem of housing shortage in urban areas. According to the Indian government, around 40 million households are experiencing the problem of housing shortage (OECD 2019). It is expected that India's urbanization rate would be over 50 percent in 2025, which would make the problem of housing shortage even worse. The Indian government has introduced a variety of policies related to providing affordable housing and urbanization. However, it seems that the policies are not successful till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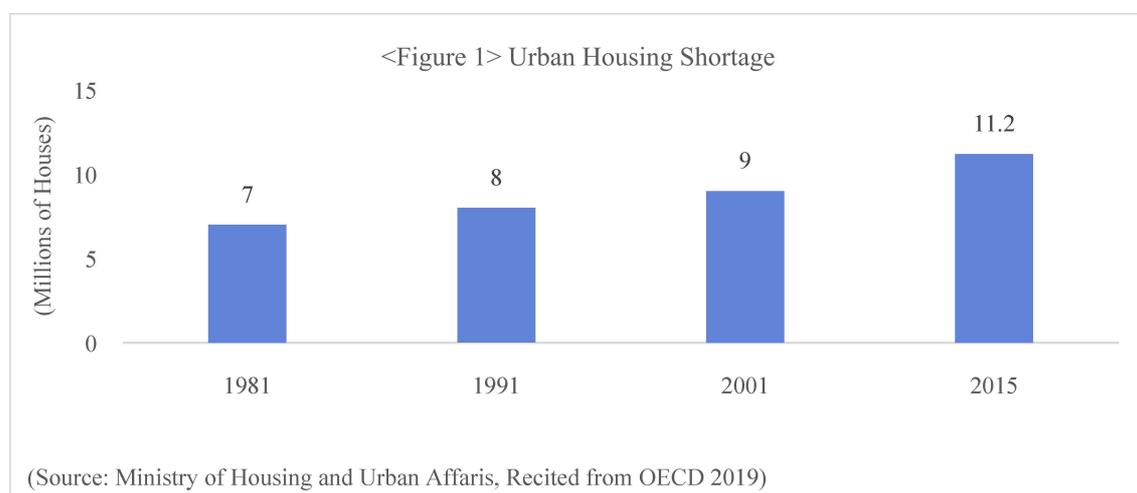
<Table 2> Migrant and Non-Migrant Populations in Major Cities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Share of Population	
		2001	2011	2001	2011
Bengaluru	Migrant	2,074,837	4,402,244	36.4	51.8
	Non-Migrant	3,626,609	4,097,155	63.6	48.2
Chennai	Migrant	1,585,012	4,388,362	24.2	50.5
	Non-Migrant	4,975,230	4,307,648	75.8	49.5
Delhi	Migrant	5,278,442	6,825,323	41	59
	Non-Migrant	7,599,028	9,489,515	41.8	58.2
Hyderabad	Migrant	1,437,998	4,943,869	25	75
	Non-Migrant	4,304,038	2,805,465	63.8	36.2
Kolkata	Migrant	3,057,477	5,217,088	23.2	76.8
	Non-Migrant	10,148,220	8,895,448	37	63
Mumbai	Migrant	7,033,745	9,956,713	42.8	57.2
	Non-Migrant	9,400,641	8,457,575	54.1	45.9

(Source: Restructured based on **Devulapalli** and **howindialives.com**, 2019)

As Table 2 shows, the number of migrants in big cities substantially increased from 2001 to 2011. In the case of Hyderabad and Kolkata, the share of the migrant population increased by threefold during the same period. The total population in these cities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Therefore, it shows that an increase in migrants was a factor in the expansion in population.

However, the problem of housing shortage in urban areas has become serious in India, as urbanization has been ongoing. Housing shortage in urban areas is not only a lack of physical housing but also a proper resident meeting the minimum standards for daily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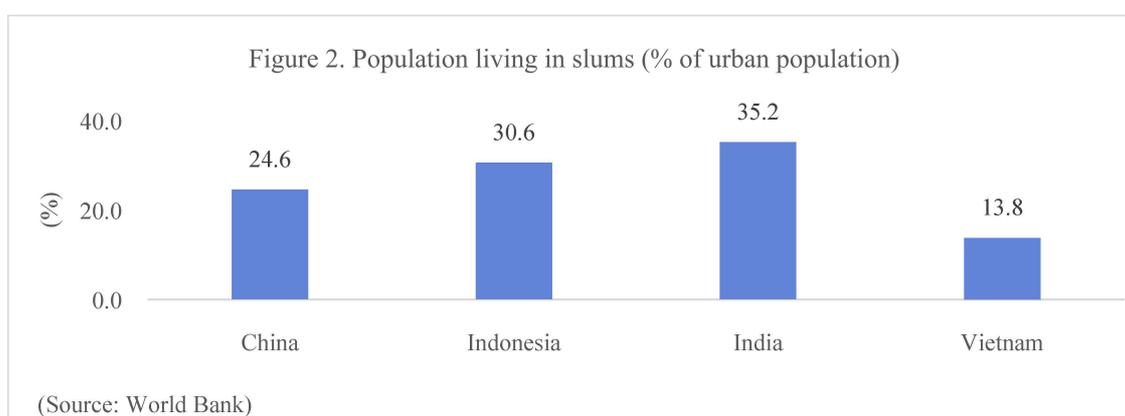
When it comes to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housing, the problem of housing shortage is worse in Indian urban areas.

<Table 3> Distribution of Households by type of Drainage Connectivity for Waste Water Facility

Area	Households (in millions)	Types		
		Closed drainage	Open drainage	No drainage
Urban	78.86	35.10(44%)	29.39(37%)	14.38(18%)
Rural	167.83	9.64(6%)	52.03(31%)	106.14(63%)
Total	246.69	44.74(18%)	81.42(33%)	120.52(49%)

(Source: Government of India 2013)

Drainage facilities are a determining factor in the quality of housing in terms of hygiene and health. Table 3 shows that only 44% of urban households have proper drainage facilities, while 56% of them have open or no drainage.



According to the World Bank, *slum household* is defined as a group of individuals living under the same roof lacking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ccess to improved water, access to improved sanitation, sufficient living area, housing durability, and security of tenure, as adopted i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 Target 7.D<sup>25</sup>). As of 2018, 35.2% of India's urban population live in slums, which demonstrates the history of India's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Government of India 2015). In general, migrant workers as casual workers cannot afford to have or rent a house in an urban area; hence, they have been driven to slum areas.

25) Please see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EN.POP.SLUM.UR.ZS?locations=IN>

#### IV. India's Urban housing policy

The Indi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inclusive housing policies to provide adequate housing since the Independence. There was a transition in urban housing policy from the 2000s. Before then, the policies were focused on credit subsidy policies for low-income groups, or slum improvement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urban areas. The former includes the Subsidized Housing Scheme for Industrial Workers and the Economically Weaker Sections (1952) and the Low-Income Housing Scheme (1954). To improve slum areas, the Slum Clearance and Improvement Program (1956),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Urban Slums (1972), and the National Slum Development Program (1997) were introduced. In 1986, the Urban Basic Services Scheme was implemented to improve infrastructure as well as social services such as pre-school programs and vocational training. Nehru Rozgar Yojana (1989) was launched to alleviate the suffering of the urban poor, in which the employment and housing upgradation scheme were included (D'Souza 2019).

The Jawaharlal Nehru National Urban Renewal Mission (2005) was India's first urban redevelopment policy with two subprograms, Basic Services for the Urban Poor and the Integrated Housing and Slum Development Program. The former was to develop infrastructure such as sanitation, while the latter was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urban slum areas. Rajiv Awas Yojana was also introduced in 2011 to tackle slums and to provide affordable housing for the urban poor, but this scheme was delayed (Tiwari and Rao 2016). According to D'Souza (2019), both policies were unsuccessful because of inadequate housing and deficient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and private sectors.

With an aim to provide housing for all in urban areas by 2022, Pradhan Mantri Awas Yojana has been operating since 2015. Under this policy, in-situ slum redevelopment and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for affordable housing with housing loan interest subsidies for non-homeowners are included.

India's housing policy has not been implemented with a clear vision so far, and policies targeting housing supply and slum redevelopment have been parse. However, without addressing obstacles to India's housing supply—such as a lack of housing budget, land compensation, and building laws—housing policies could hardly progress smoothly, and India's housing supply could not help but continue to slow down.

## V. Conclusion

This study has limitations, which will be dealt in the further study. First, we will work on data consistency. Second, we will evaluate India's inclusive housing policies by comparison of other countries' cases. Lastly, the impacts of COVID-19 on India's urban housing also will be covered to suggest desirable policies.

## Reference

- Colmer, J (2016), Urbanisation, Growth, and Development: Evidence from India, World Bank
- Kundu, A. and A. Kumar (2017), Housing for the Urban Poor?: Changes in Credit-linked Subsidy, Economic Political Weekly, Vol. 52, Issue No. 52
- Tumbe, C. (2016), Urbanization, Demographic Transition and the Growth of Cities in India, 1870-2020, International Growth Center
- OECD 2019, OECD Economic Survey, available at <https://www.oecd-ilibrary.org/sites/f798cf84-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f798cf84-en>
- Sridhar, K.S. (2016), Costs and Benefits of Urbanization: The Indian Case, Asian Development Bank
- Sriharsha Devulapalli, howindialives.com (2019), Migrant flows to Delhi, Mumbai ebbing, Livemint, 20 Sep 2019
- United Nation (2020), Policy Brief: COVID-19 in an Urban World.
- van Doorn L., Arnold A., Rapoport E. (2019) In the Age of Cities: The Impact of Urbanisation on House Prices and Affordability. In: Nijskens R., Lohuis M., Hilbers P., Heeringa W. (eds) Hot Property. Springer, Cham. [https://doi.org/10.1007/978-3-030-11674-3\\_1](https://doi.org/10.1007/978-3-030-11674-3_1)

패널 2> 인도 여성·정치·법

Studies of Indian Women,  
Politics, and Law



# 인디라 간디 아이콘과 젠더

박금표  
한국외대

## 목차

- I. 서론
- II. 인디라 간디의 아이콘
  - 1. 베티(Beti) 아이콘
  - 2. 바라뜨 마따(Bharat Mata) 아이콘
- III. 집권자의 젠더
- IV. 인도의 젠더의식에 미친 영향
- V. 결론

## I. 서론

인디라 간디는 16년(1966-1977, 1980-1984) 동안 인도의 총리 자리에 있었다. 1968년에 미국, 소련, 영국이 ‘핵무기 확산방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안을 <유엔군축위원회>에 제출하여 40개국이 동의한 ‘핵무기 확산방지조약’이 1970년에 발효되었다. 그러나 인디라 간디는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1974년에 ‘미소 짓는 붓다(Smiling Buddha)’라는 이름의 핵실험에 성공하여 인도를 핵보유국으로 만들었다. 또한 1967년부터 녹색 혁명(Green Revolution)을 주도하여 인도의 식량 문제를 해결했고 1971년에는 제3차 인-파 전쟁에서 방글라데시를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외교적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러나 1975년에 선거부정을 이유로 하원 의원 자격이 박탈당하자 비상계엄을 선언했고 그 여파로 1977년에 실각하고 구속되었다. 1980년에 재집권에 성공했으나 1984년에는 분리운동을 추진하던 시크교도들에 대한 ‘푸른 별 작전(Operation Blue Star)’을 지시하여 시크교 본산인 황금사원에 폭격을 가했다. 이러한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1984년 10월 31일, 시크교도에 의해 인디라 간디가 피살되었다.

인디라 간디에 대한 연구는 인디라 간디의 집권기와 비상사태 선포 그리고 이후 종교 분리주의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연구되었다. 영국의 대처(Margaret Thatcher) 총리나 이탈리아의 골다 메이어(Golda Meir) 총리와 함께 ‘철의 여 총리들’로 묶인 연구들(Gupta, 2015; Steinberg, 2014)이 있는데 굽타의 연구는 페미니즘 시각을 바탕으로 한 연구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인디라 간디와 젠더 혹은 페미니즘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성’으로서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역할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 여성의 해가 지정되고, 여성 지위와 관련된 위원회 설립과 그 보고서에 나타난 실태 개선의 담론이 형성되고 있던 시기에 총리로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인디라 간디의 여성 아이콘은 인도의 젠더 의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디라 간디의 집권 과정과 인디라 간디가 발휘한 리더십으로 형성된 아이콘을 분석하고, 한 국가의 집권자로서의 젠더 인식과 표현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도인과 인도 여성의 젠더 인식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인디라 간디의 정치적 능력 혹은 업적을 분석하는 논문이 아니며, 정계와 대중에게 인디라 간디는 어떠한 아이콘으로 비추어졌고, 인디라 간디는 어떠한 이미지의 아이콘을 추구했는지를 분석하여 그것이 젠더 의식에 미친 영향에 한정된 연구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 II. 인디라 간디의 아이콘

독립 이후 18년 동안 네루 총리가 인도를 이끌었다. 1964년 네루가 사망했을 때, 누가 네루의 뒤를 이어 인도를 이끌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집권당은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 이후 INC)였으므로 INC에서 대표를 선출하여 총리에 취임해야 한다.

당시 INC의 중심 세력은 까마라즈(Kumaraswami Kamaraj, 1903-1975), 니잘링가빠(Siddavanahalli Nijalingappa, 1902-2000), 레디(N. Sanjiwa Reddy), 아톨라 고쉬(Atulya Ghosh), 빠뜨나이그(Biju Patnaik), 빠땀(Sadashiv Kanoji Patil, 1898-1981) 등이다. 이들은 1960년대 초 일명 신디케이트(Syndicate)라 불리는 파벌을 형성한 원로들이었다. 1963년에 까마라즈는 당 총재로 선출되면서 당 최고 행정기구인 실무위원회(Congress Working Committees: CWC)를 신디케이트 혹은 신디케이트 지지자들로 구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루 사망 후 총리직에 도전장을 낸 사람은 데사이(Morarji Ranchhodji Desai, 1896-1995)와 샤스프리(Lal Bahadur Shastri, 1904-1966)였다. 원로들이 샤스프리를 총리로 선택한 것을 알게 된 데사이는 경선을 포기하고 물러났다. 이로써 네루의 뒤를 이어 샤스프리가 단일 후보로 총리가 되었으나 2년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다시 후계 총리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 이때 데사이는 다시 한 번 총리 후보로 등록을 했고, 원로들은 인디라 간디를 내정한 상태였다. 데사이는 이번에는 경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를 하게 되었다. INC의 526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무효 2표, 인디라 간디 355표, 데사이가 169표라는 결과를 낳았고(Gupte, 1992: 277), 주(州)총리 14명 가운데 12명이 그녀에게 투표했다(Chandra et al. 2008: 280)

당시 INC에서는 70세가 된 노련한 데사이를 제쳐두고 40대의 인디라 간디를 선택했다. 신디케이트 그룹이 선택한 인디라 간디에 대한 이미지, 인디라 간디가 추진했던 자신의 이미지는 매우 달랐다. 이에 이 장에서는 신디케이트들이 인식한 혹은 만들어내고자 했던 인디라 간디의 아이콘과 인디라 간디 자신이 만들어낸 아이콘을 비교해보고 그것에서 드러나는 젠더 인식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1. 베티(Beti) 아이콘

샤스프리가 사망한 후 총리 경선에 데사이가 다시 등장했다. 신디케이트는 데사이가 총리가 되는 것을 막기로 작정을 했다. 데사이는 신디케이트 그룹과는 성향이 달랐고, 독단적 성향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일단 권력을 잡으면, 자신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할 것이라는 의

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사이는 신디케이트와 교류나 화합을 추진하기보다는 공개적으로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경멸과 조롱을 퍼부었다(Gupte, 1992: 277). 그렇기 때문에 데사이의 대항마를 찾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데사이와는 성향이 다른 즉 신디케이트 그룹을 존중함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신디케이트의 영향력이 계속 발휘될 수 있는 대상을 모색했는데 그 적임자로 인디라 간디를 선택한 것이다. 인디라 간디는 네루의 딸이기 때문에 인도 전체에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진보적인 이미지로 비추어 질 수 있을 것이고, 특별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신디케이트는 인디라 간디를 선택했다. 그들은 대중에 대한 이미지와 자신들의 영향력 두 가지 효과를 인디라 간디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신디케이트에게 인디라 간디는 네루의 딸이며, 네루와 동지였던 자신들의 딸과 같은 존재로 생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9년에 INC 총재로 있을 때, 당시 내무부 장관인 뻬뜨(G.B. Pant)가 인디라 간디에게 “애야(Beti), 너 아직 너무 어려서 이해가 안 될 거야”라고 말했던 (Gill 1996: 366) 분위기는 인디라 간디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베티는 딸을 의미하는 말이며 친근함을 표현하는 애칭이기도 하다. 당내의 원로들은 인디라 간디를 베티 또는 바헨(bahen: 누이)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인디라 간디가 집권한 초기에는 이러한 분위기의 아이콘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디라 간디의 베티 스타일의 아이콘은 신디케이트들에게 친근한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순종적인 이미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 총재인 까마라스와 신디케이트는 당 조직과 정책 입안에 총리의 영향력을 제한하려고 노력했다. 인디라 간디는 당내 문제나 국회의원 선거 후보 선출에 있어서 발언권을 많이 갖지 못하게 하고 당과 내각에서 그녀를 고립시키는데 성공했다 (Chandra et al. 2008: 284).

게다가 인디라 간디는 의회에서의 발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총리 취임 초기에는 능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과 신디케이트가 인디라 간디 선택 배경이 합쳐지면서 그녀를 비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빌미가 되었다. 특히 네루에게 적대적이었던 로히아(Ram Manohar Lohia)는 인디라 간디의 미숙한 모습을 보고 ‘멍청한 인형(goongi gudiya)’라고 야유를 함으로써(Malhotra, 2014: 93), ‘궁기 궁디야’는 인디라 간디의 별칭이 되기도 했다.

호칭은 무언의 압박이 될 수 있다. 신디케이트에게는 딸처럼 복종해야 하는 베티였고, 반대자들에게는 꼭두각시 같은 궁기 궁디야로 불린 인디라 간디는 그 두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하는 무언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1967년 총선까지 이러한 인디라 간디의 이미지는 계속되었다.

## 2. 바라뜨 마따(Bharat Mata) 아이콘

인디라 간디가 총리가 되었지만 당내에서나 의회에서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집권 후 가장 큰 과제는 1967년 4대 하원 선거였다. INC의 공천과정을 보면 INC 주(州) 위원회(Pradesh Congress Committees: PCCs)에서는 공천자를 선정하여 공천 후보자 명단을 당 중앙선거위원회(Central Election Committee: CEC)에 보내면 여기서 최종 입후보자를 결정한다. 그런데 1967년 총선 때 CEC 위원 대부분이 신디케이트가 지명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이 이들이 후보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인디라 간디는 총리인 자신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공천 과정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1967년 4대 하원선거는 2월 17-21까지 치러졌다. 집권 1년 후에 치러진 이 선거에서 인디라 간디는 공천에는 영향력 행사를 하지 못했지만 선거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인디라 간디 자신도 작고한 남편의 선거구인 UP의 라이바릴리(Rai Bareilly)에서 출마했다. 총선에서 인디라 간디는 자신의 선거구는 물론이고 많은 지역의 선거 유세에 참가했다. 신디케이트가 기대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대중적인 호소력과 네루라는 이름이 가져올 이익을 희망하면서 여러 선거구에서 지원 유세를 청했기 때문이다. 총선 시기에 인디라 간디는 거의 35,000마일에 달하는 거리를 오픈 지프를 타고 이동하면서 수백 개의 대중 모임에서 연설을 했다.

이 선거 유세에서 인디라 간디는 자신이 정당을 초월하고, 정치를 초월하며, 오로지 '내 가족의 일원'이라고 여기는 인도 국민을 섬기는 데만 관심을 쏟는다는 것을 전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그녀의 이미지를 '인도의 어머니(Bharat Mata)'로 만들었다(Singh 2012: 492).

인디라 간디는 가난한 유권자들에게 "당신들의 짐은 비교적 가볍다. 당신들의 가족들은 한 정적이며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의 짐은 다양하다. 왜냐하면 수천만의 나의 가족 구성원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 나는 그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 다른 카스트에 속하고 종교도 달라서, 때로는 그들끼리 싸우기도 하는데, 나는 여기에 개입하여 특히 약자들을 돌봐야 한다. 그래야 더 강한 사람들이 그들을 갈취하지 않는다(Malhotra 2014: 104).

말호뜨라는 이 연설이 끝날 무렵 인디라 간디는 겨우 마흔아홉 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인디라 어머니'로 열렬한 환호를 받았으며 그녀의 생이 끝날 때까지 그녀를 감싸는 또 하나의 전설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Malhotra 2014: 104).

사실 신디케이트에서 원하던 것이 이것이다. 선거에서 네루의 이미지를 살려 유리한 입지를 만드는 것이 인디라 간디에게 기대한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루의 딸이라는 이미지로 인도의 유권자를 동원하여 총선에서 승리 할 수 있기를 기대한 것이며 당내에서나 정책 입안에 영향력은 제한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디라 간디는 1967년의 총선에서 후보 공천에 어떤 위력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집권 1년만의 총선에서 그녀의 선거운동은 그녀의 위상과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명정한 인형이 아니라 인도의 어머니라는 아이콘으로 변신을 시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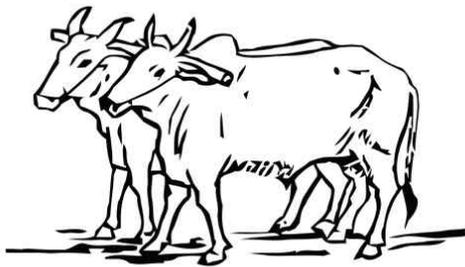
1967년 말 무렵 신디케이트 외에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지도자 그룹이 있었다. 차반(Y.B. Chavan), 싱(Darbara Singh), 람(Jagjivan Ram) 수카디아(Mohan Lai Sukhadia), 굽따(C.B. Gupta), 레디(Brahmananda Reddy) 등이 중도파에 속한다. 인디라 간디는 신디케이트에 대한 보루를 쌓기 위해 이들을 끌어들이려 했다. 특히 1967년 말 까마라즈가 당 총재에서 물러났을 때, 인디라 간디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선출하려 했다. 그러나 신디케이트의 일원인 니잘링가빠가 당 총재가 되었고 당 운영위원회에도 인디라 간디 지지자는 선출되지 않았다(Chandra et al. 2008: 295). 인디라 간디의 당과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되었다. 모든 정책은 당 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하고 정부의 수반인 총리와 장관들은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신디케이트가 주장함으로써 인디라 간디는 당무에도 관여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라 간디는 1969년과 1971년 사이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했고, 그의 입지는 강화되기 시작했다. 제헌의회 여성의원이었던 레누카 레이(Renuka Ray)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 시기에 인디라 간디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력과 능력은 그녀를 반대하던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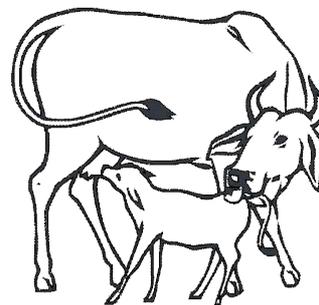
까지도 놀라게 할 정도였으며, 동파키스탄 내전 당시 미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무지부르 라만(Sheikh Mujibur Rahman)을 지지하여 방글라데시를 독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우려하던 인도군의 방글라데시 주둔을 조기에 종료시켰다고 평가했다(Ray 1982: 255).

그러나 한편으로 1969년 중반부터 당내의 분쟁에 휩싸였다. 인도의 대통령 선거에서 인디라 간디는 INC의 후보인 레디(Neelam Sanjiva Reddy)를 지지하지 않고 무소속의 기리(V. V. Giri)를 후원했다. 이로 인해 당내의 기강을 어지럽힌다는 비난을 샀다. 또 한편으로 국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대형 은행들을 국유화했는데 이로 인해 신디케이트들과 충돌했고 재무 장관이었던 데사이가 사임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당 총재인 니잘링가빠는 인디라 간디를 INC에서 축출했다. 이로 인해 INC는 인디라 간디가 이끄는 INC(R)과 기존의 INC(O)로 분당 되었다.

분당된 상태로 1971년 총선을 맞이했는데 여기서 인디라 간디의 이미지는 확실히 바뀌었다. 총선에서 인디라 간디가 내세운 기치는 ‘가난 제거(garibi hatao)’였다. 그리고 송아지에 젖을 먹이고 있는 어미 소를 당의 상징으로 사용했다. INC(O)에서는 독립 이후 사용해오던 두 마리의 황소를 상징으로 사용했다.



두 마리의 황소: INC, INC(O) 선거 심벌



어미 소와 송아지: INC(R) 선거 심벌 (1971-1977)

출처: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Indian\\_National\\_Congress](https://en.wikipedia.org/wiki/Indian_National_Congress)

총선에서 인디라 간디의 INC(R)은 352석을 차지했고, INC(O)는 16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인디라 간디의 입지는 확고해졌다. 또한 남성들이 이끄는 이미지의 황소 두 마리보다 국민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도 확실히 드러냄으로써 꼭두각시 인형 같은 베티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인도의 어머니 바라뜨 마따의 아이콘을 각인시켰다. 이러한 아이콘을 형성한 인디라 간디는 1972년에 치러진 지방 의회 선거에서도 위력을 발휘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석의 70%를 차지했고, 총 유권자의 47%의 지지를 받았다(Everett 1993: 118). 이로써 인디라 간디는 당을 장악했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을 주(州) 총리로 내세워 4명이 당선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디라 간디의 아이콘은 1차 집권기라 할 수 있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sup>26)</sup> 인디라 간디를 총리로 만든 사람들은, 마치 아버지의 말을

26) 물론 1975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에 ‘철의 여 총리’ 혹은 ‘독재자’로 불리기도 했지만 인디라 간디를 총리로 만든 사람들과 인디라 간디 자신이 만들고자 했던 아이콘은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잘 듣는 딸처럼, 그녀가 순종적이길 기대했다. 싱(Sourabh Singh)의 연구에 따르면 신디케이트가 인디라 간디의 보호자 같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녀를 베티(딸) 혹은 바헨(누이)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종의 ‘젠더 인지적 호칭’을 사용한 것이며 자신들이 지배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상징적 폭력(symbolic violence)’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신디케이트 멤버들은 문화적으로 간디에게 젠더 역할을 부여하여 순종과 순응을 기대한 것으로 우월적 관계보다는 보호적인 아버지-관념적인 딸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그녀를 통제하는 것이 더 쉽고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Singh 2012: 490-491).

까비라즈(Kaviraj 1986: 1697)는 인디라 간디의 변화는 국내외적 상황에 대응하는 ‘생존논리(logic of survival)’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이에 대해 에버렛(Everett 1993: 104)은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이나 심리적 분석보다 훨씬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분석하면서 까비라즈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젠더적 고려가 인디라 간디의 생존전략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요컨대 신디케이트가 인디라 간디를 선택한 것은 젠더 차별 인식 기반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이므로 남성이면서 아버지 같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차별적 젠더 인식 기반을 극복하기 위해 인디라 간디가 선택한 또 다른 아이콘은 ‘어머니’이다. 이것 역시 젠더 기반의 아이콘 형성이지만 지배하는 총리가 아니라 국민을 보살피는 어머니 같은 총리라는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 3. 집권자의 젠더

인디라 간디의 집권 시기를 다룬 인디라 간디의 자서전과 전기 혹은 연구서에서는 인디라 간디가 자신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며, 여성임을 부정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인디라 간디가 표현한 젠더 관련 발언에 대해 검토해보고, 집권자의 젠더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인디라 간디가 총리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인도의 수도에 몰려든 기록적인 숫자의 세계 텔레비전 팀들 중에서 네덜란드 텔레비전은 그날 아침 인디라 간디와의 인터뷰에서 그녀가 다음 주 수요일에 총리가 될 것 같다고 논평하면서 시작되었다. 기자의 질문은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인 4억 8천만 국민의 여성 총리가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인디라 간디의 대답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한 사람이 인간의 문제”라고 답했다(Vasudev 1974: 345).

이러한 내용은 인디라 간디의 전기 작품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Malhotra, 2014: 361)이라고 말했다거나,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여성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Schupack, 2012: 13)”라고 답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간디의 자서전에는 이것보다는 좀 더 상세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나는 이 일에 관해서는 나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여성이 어떤 직업에 필요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녀는 그 직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게다가,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인간이다. 나는 내 일을 할 때 나를 여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인도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남녀, 언어, 국가에 관한 차별 없이 평등하다. 나는 그저 인도 시민일 뿐이고 나라의 첫 번째 종인 데쉬 세비까(desh-sevika: 국가에 대한 봉사자)이다(Gandhi, 1981: 113).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인디라 간디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답했으며 자신이 여성으로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비판적 시각을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여성이 총리가 되었으니 여성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입한 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은 여성성을 부정하고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 강한 발언을 한 인디라 간디에게 실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평가해보면 인디라 간디 스스로 자신은 여성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총리가 된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 오히려 그녀의 젠더 의식이 확고히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굽따(Madhuparna Gupta)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굽따에 따르면 남성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 젠더는 확실히 중요한 요소인데, 비록 그들의 나라를 파괴적이고 심지어 불공평한 전쟁으로 이끈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지도자들이 '남자다운' 그리고 남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반면 가부장적 세계에서 여성 지도자들이 여성 친화적 정책을 취하거나, 전쟁보다는 평화 지향적 결정을 내리길 바라지 않는데, 이는 가정에서 격찬되는 '페미니스트 덕목'이 공공 영역에서 '겁쟁이'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Gupta, 2015: 17-18), 또한 영국의 대처(Margaret Thatcher)나 이스라엘의 메이어(Golda Meir) 역시 인디라 간디와 마찬가지로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 것과 여성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sup>27)</sup> 대처 총리의 경우 집권 전인 1978년 4월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혼지 저널(Hornsey Journal)』과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인 네빌(Barry St John Nevill)이 “페미니스트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나는 그들이 너무 공격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우리를 우리가 아닌 것으로 만들면서 여성의 대의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다르다. 각자는 각자의 재능과 능력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꺼내어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다. "내가 여자라서 성공했다"거나 "내가 남자라서 성공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 일에 적합한 재능을 잘 조합시켰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해야 한다. 그 문제를 과장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패배할 것이다.<sup>28)</sup>

요컨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세계 여러 나라의 여성 집권자가 등장했는데 이들 모두 여성성을 부정하고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공언을 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그들이 '여성'으로서 집권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젠더가 아닌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음을 강조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남성 집권자가 페미니스트라고 발언하면 '여자에게도' 우호적일 것으로 판단하지만, 여성 집권자가 페미니스트라고 발언하면 '여자에게만' 우호적일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자의 젠더는 남성/여성인 것이 아닌 중립적이어야 하고, 나아가서 여성과 남성이라는 대립적인 젠더인식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총리가 되면 여성성을 부정하고 반(反) 여성적 젠더 인식을 갖는다는

27) 영국의 대처 총리는 1979년 5월 4일 ~ 1990년 11월 28일까지 집권했으며, 이스라엘의 메이어 총리는 1969년 5월 17일 ~ 1974년 6월 3일 집권했고 인디라 간디는 1966~1977년, 1980~1984년까지 집권했다.

28) Margaret Thatcher Foundation(1978). "Interview for Hornsey Journal"  
<https://www.margaretthatcher.org/document/103662>

평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 IV. 인도의 젠더의식에 미친 영향

인디라 간디 스스로 여성임을 부정했다고 해서 여성들의 젠더 의식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여성이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된 자체로 페미니즘의 흐름 혹은 여성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인디라 간디는 총리가 되기 이전에 여성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여성을 조직화 하는 문제에 매진한 적도 있다. 1956년 2월 23일에 미국에 있는 친구 노먼(Dorothy Norman)에게 쓴 편지에서 국민회의 여성부(Congress Party's Womens Section)를 구성하기 위해 수많은 순회 연설을 하고 중요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자신의 예술과 문학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지만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썼다(Gandhi and Norman 1985: 30). 또한 1959년 6월 21일의 편지에서는 게랄라의 공산주의 확산에 대해 우려하면서 자신이 몇 년 동안 여성을 조직하려고 노력했음에도 움직이지 않던 여성들이 이제 공산주의에 동조하여 활동무대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 운동에 참여한 여성 80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편지를 쓰기도 했다(Gandhi and Norman 1985: 57).

이처럼 총리가 되기 전에는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총리가 된 다음에는 자신이 '여성'이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래서 여성이 총리가 되었음에도 인도의 여성 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비판하기도 한다. 특히 인디라 간디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언론이 통제되었던 이후에 창간된 『마누쉬(Manushi)』에서는 '잔인한 환상'이라는 소제목으로 인디라 간디가 집권한 이후 여성 문제의 진보를 기대했던 것은 환상이었을 뿐이라는 신랄한 비판을 했다.

이번 선거의 경향으로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인디라 간디에게 투표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많은 여성들이 그녀를 챔피언으로 보는가? 그 어떤 여성도 그녀만큼 자신의 성별과 동떨어질 수는 없다. 그녀는 자신이 남자아이처럼 자랐으며, 남성과 다른 느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차별 같은 것은 받은 적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중략) 그녀가 총리로 집권하고 있는 동안 여성들은 그들이 얻은 거의 모든 것을 잃기 시작했다. 정치에서도 대부분의 저명한 여성들은 빛을 잃었고 그녀는 새로운 세대의 여성 정치인들이 나타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녀가 방금 발표한 첫 번째 장관 명단에 여성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략) 이 나라의 여성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와 독립적이고 확신을 가진 여성성의 상징으로 동일시하고 있는가? (중략)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가장 잔인한 환상이다. 왜냐하면 권력투쟁을 하는 여성들은 자신이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자와 같은 조건에 있으며, 생존을 위해 자신들이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여성으로서 자신들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잊어야만 한다(Manushi Collective 1979-1980: 4).

인디라 간디의 집권기에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앞서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집권자의 젠더는 개인의 젠더 표현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한 나라의 총리가 자신이 '남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젠더 의식을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1970년대가 젠더 평등 의식이 성숙된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알보는 경향에 대한 방어적 기제로 여성성을 부인하거나 내색하지 않는 표현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집권자가 직접적으로 여성문제를 공론화 하고 여성 각료를 임명했는가의 여부만 여성에게 미친 영향의 전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1967년 선거에 인디라 간디가 처음을 출마하여 선거 운동을 하고 있던 라이바릴리의 유세 장면을 묘사한 전기를 보면 예전 선거에서는 유세장과 같은 공개된 모임에 참석할 엄두도 내지 못하던 여성들이 인디라 간디의 유세장에 참여했고, 그 지역 인구의 16% 정도의 무슬림이 살고 있었는데 빠르다(Purdah)를 쓰고 있던 무슬림 여성들에게 인디라 간디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무슬림 여성들은 유세 도중에 베일을 벗어던져 버리기도 했다고 한다(Vasudev, 1974: 381-382).

여성 정치인들에게는 인디라 간디의 내각에 몇 명의 여성이 임명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일반 대중들은 ‘여성이 이 나라의 대표’라는 것 자체로 젠더 의식이 변화될 수 있다. 각 국가의 여성 정치 지도자들을 연구한 연구서에서는 인디라 간디가 페미니스트에 미친 영향이 완전히 부정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하면서, 아흐메다바드 자영업여성협회(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의 엘라 바트(Ela Bhatt) 회장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든 여성들은 인디라 간디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Everett 1993: 128).

직접적인 정책 혹은 여성 등용과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성 문제에 미친 영향 혹은 인도인의 젠더 인식에 미친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장면들 모두 여성의 자신감과 비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며 나아가서 남성들에게도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면 장관 몇 명 혹은 여성 정책 몇 가지보다 이러한 장면이 훨씬 더 대중의 젠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반드시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펼쳤는가보다는 인도의 위상을 얼마나 높였는가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젠더 인식에 영향을 남길 수 있다. 독립 이후 인도의 역사를 조망한 연구에서는, 인디라 간디가 매우 복잡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복잡성이 많은 논쟁거리를 만들었으나, 20년 동안 집권하면서 물론 약점도 있었지만 인도의 위상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Chandra et al. 2008: 340). 뿐만 아니라 인디라 간디가 인도의 자립성 유지, 군사력 강화, 남아시아의 지배세력으로 성장 등을 높이 평가하고 현재 인도의 위상은 인디라 간디가 대외관계에 동분서주하면서 보여준 민첩성과 자신감에 기초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Everett 1993: 129).

그러므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과오도 적지 않았겠으나 젠더 측면에서 인도 여성의 위상, 인도 여성의 인식 변화에 미친 인디라 간디의 영향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디라 간디의 집권 초기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낸 아이콘을 분석하고 집권자로서의 젠더 인식과 표현 그리고 그것이 인도의 젠더 인식에 미친 영향을 검토했다.

1964년에 네루가 사망하고 뒤를 이어 총리가 된 샤스프리가 1966년에 사망함으로써 새로운 총리를 물색해야 했던 INC 지도부는 인디라 간디를 선택했다. 그들이 인디라 간디를 선택한 것은 네루의 딸이라는 점, 네루에게 순종적이었듯이 원로들에게도 순종적이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력을 쥐고 있는 신디케이트의 영향력이 계속 발휘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초기 인디라 간디의 이미지는 신디케이트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줄 꼭두각시 같은 인형 혹은 복종하는 딸과 같은 아이콘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총리로서 온전한 정치력을 발휘하려 한 인디라 간디는 이미지를 변화시켜 ‘인도의 어머니’ 바라트 마따의 아이콘을 형성했다.

어떠한 아이콘으로 어떠한 이미지를 전달했던 인디라 간디는 한 나라를 이끄는 총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여성’임을 강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별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여러 번했다. 이 때문에 인디라 간디는 여성 총리이면서도 여성을 대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한 국가의 집권자는 자신의 성별에 좌우되지 않는 중립적인 입지를 고수해야 하는 것이 더 온당한 일이라고 본다.

또한 인도의 젠더 인식, 여성의 진보에 미친 영향이 직접적인 정책으로만 평가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성이 총리가 된 그 자체로도 정치인이 아닌 일반 대중들에게는 자신들의 비전을 가질 희망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디라 간디가 직접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펴거나 여성 장관들을 등용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인디라 간디가 인도의 젠더 인식 특히 여성의 젠더 인식에 미친 영향을 폄하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Chandra, B., Mukherjee, A., Mukherjee, M.(2008). *India Since Independence*. New Delhi: Penguin Books India.
- Everett, Jana(1993). “Indira Gandhi and the Exercise of Power” in Genovese, M. A. ed.(1993). *Women as national leader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103-134.
- Gandhi, I., and Norman, D. (1985). *Indira Gandhi, letters to an American friend 1950-1984*. San Diego: Harcourt Brace Jovanovich.
- Gill, S. S. (1996). *The Dynasty: A Political Biography of the Premier Ruling Family of Modern India*. New Delhi: Harper Collins Publ. India.
- Gupta, Madhuparna(2015), *Women, Power and Leadership: Case Studies of Indira Gandhi, Margaret Thatcher and Golda Meir*, New Delhi: Partridge Publishing India.
- Gupte, Pranay(1992). *Mother India-A Political Biography of Indira Gandhi*.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Kaviraj, S. (1986). “Indira Gandhi and Indian Politic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21(38/39), 1697-1708.
- Margaret Thatcher Foundation(1978). “Interview for Hornsey Journal” <https://www.margaretthatcher.org/document/103662>
- Malhotra, I.(2014). *Indira Gandhi: A Personal and Political Biography*. Haryana: Rajkamal Electric Press.
- Manushi Collective(1979-1980). “Our Alarming Silence”, *Manush* 4, 2-6.
- Moraes, Dom(1980). *Mrs Gandhi*. New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 Ray, Renuka(1982). *My Reminiscences: Social Development during Gandhian Era and After*. New Delhi: Allied Publishers Pvt. Ltd.
- Singh, Sourabh(2012). “Unraveling the enigma of Indira Gandhi’s Rise in Indian Politics: a Woman Leader’s Quest for Political Legitimacy”, *Theory and Society*, 41(5), 479-504.
- Vasudev, Uma(1974). *Indira Gandhi: Revolution in Restraint*.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 인도의 쇠고기 타부 문화의 정치화

상연진  
한국외대

한국외대  
상연진

## 힌두의 무슬림 배제 전략과 모순: 쇠고기 타부 문화의 정치화를 중심으로

### 목차

- I. 서론
- II. 본론
  - 1. 쇠고기 타부 문화의 정치화
  - 2. 쇠고기 타부 문화를 이용한 무슬림 배제 전략과 모순
    - 1) 음식과 타부
    - 2) 낙인
    - 3) 혐오
- III. 결론

## I. 서론

- ▶ RSS 골와카르: "인도의 통합과 화합의 바탕은 소에 대한 존중"
- ▶ -> "소"라는 상징물로 인도를 통합하려고 함
- ▶ 식민지 시대 이전, 이후의 힌두민족주의자들은 "소를 해치는 자는 힌두에 해를 끼치는 죄를 범하는 자"라는 생각을 널리 퍼뜨림
- ▶ "소"= 반무슬림의 상징, "소를 해치는 자"= 반국가적인 자의 상징
  
- ▶ 2014년 BJP 집권
- ▶ 2015년 마하라슈트라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 소 도살과 판매, 소비를 불법으로 규정
- ▶ → 소 관련 폭력의 발생 빈도, 처벌 등 암소 보호를 명목으로 소 자경단에 의한 폭력 급증
- ▶ 쇠고기 감지 키트(Beef detection Kit), 소 고유식별번호(Cattle UID numbers) 도입을 통해 소를 소유한 집단에 대한 감시 확대
- ▶ → 하층 카스트 힌두와 비힌두에게 브라만 중심적 금기를 강요
- ▶ 쇠고기 금지법은 단순히 종교적 민감성을 법제화한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법안을 국가가 수용하고 적용했다는 것이 문제
- ▶ → 정치 지도부의 소 도살 관련 법 제정과 폭력 사태에 대한 침묵, 승인은 소수집단에 대한 낙인 및 혐오를 통해 이 집단을 소멸하는 것을 조장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음
- ▶ 힌두 민족주의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쇠고기 타부 문화를 이용하여 무슬림을 타자화하고 배제하여 열등 시민으로 전락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쇠고기 타부 문화의 정치화

- ▶ 헌법 48조: "국가는 농업과 축산업을 현대와 과학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품종 보존과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암소와 송아지, 젖소의 도살을 금지해야 한다"
  
- ▶ 2014년 마하라슈트라에서 BJP와 Shiv Sena가 정권을 잡은 이후 수정동물법안 시행
- ▶ 활소와 거세 수송아지의 도살도 금지, 그 쇠고기의 보유와 구매, 판매는 범법 행위로 규정
- ▶ → 최고 5년의 징역형과 1만 루피의 벌금 부과
- ▶ 소의 경제적 이익(우유,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 비료 제공)을 이유로 도살을 범법 행위로 규정
  
- ▶ 쇠고기 감지 키트(Beef detection Kit): 쇠고기 판매·소비·밀수 감소를 위해 고안되었다고 선전
- ▶ 소 고유식별번호(Cattle UID numbers): 소들의 고유 식별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형성  
품종, 나이, 성별, 키, 색상, 인공수정 기록, 소유자의 이름 등 표시

- ▶ 힌두 중심의 법 → '평등한 시민'의 '평등한 자유'에 가치 x
- ▶ 헌법에 '소와 송아지 도살 금지'라는 문구가 구체적으로 삽입된 것은 종교적 선호에 대한 명백한 반영과 헌법의 제정가들의 지배적 상층 힌두 카스트의 권력이 묘사되어진 것
- ▶ 쇠고기 금지법은 소수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강제적으로 동화시키려 함으로써 반자유주의적인 방법으로 소수자의 존재를—무슬림, 부족 단체, 달리트—힌두트바 규범에 흡수시키는 것
- ▶ “올바른 시민”의 기준은 힌두 상층 카스트의 지배적 관습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는 다수의 규정에 동화되도록 강요당한다.
- ▶ 과학적 방법의 도입을 통해 “소”라는 상징은 정부의 지원으로 “정상”이 아닌 소외 집단을 시민 밖으로 경계 짓는다.
- ▶ 소수의 정체성을 유지할 경우 공적 공간에서 배제되고 탈인간화의 과정을 겪는다.

## 2. 쇠고기 타부 문화를 이용한 무슬림 배제 전략과 모순

### 1) 음식과 타부

#### (1) 음식의 배제 기능

- ▶ 쇠고기 타부 문화의 정치화는 힌두 지배층의 헤게모니 권력을 이용한 무슬림 배제 전략 중 하나
- ▶ “힌두의 신성한 소를 먹는 무슬림”
- ▶ 음식과 먹기: 음식 문화는 어린 시절부터 내면화 → 가족, 커뮤니티, 집단과 연관
- ▶ 먹기 행위의 공유: 개인을 하나의 공동체로 편입
- ▶ → 음식은 문화들 간의 차이를 특징짓고 집단 정체성을 강화하는 수단
- ▶ → 음식, 요리 관행은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경계

- ▶ 먹을 수 있는 음식/먹을 수 없는 음식의 구분
- ▶ (자신들의 문화적 범주로 용인되지 않는) 음식 규범
- ▶ → 혐오감과 극도의 불쾌감으로 대응
- ▶ 화, 증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조작되기도 함
- ▶ ex) 적에게 가하는 보복 → 적의 음식 오염/
- ▶ 유해한, 역겨운, 오염된 물질을 먹게 하는 것

- ▶ 고기: 동물, 죽임, 피와 갖는 연계성
- ▶ 육욕, 동물적, 남성적 열정, 힘, 원기 +
- ▶ 오염, 피, 고통, 부패, 화, 폭력, 공격성
- ▶ 야채: 순수성, 수동성, 청결, 여성성, 약함
- ▶ → 고기는 구역질과 혐오감을 유발하고 금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음
  
- ▶ 음식을 위한 동물 살해는 '비문명화된' 관념을 내포하므로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킴
- ▶ "배변, 배뇨, 성교와 같은 행위와 함께 동물 살해는 동물적 활동으로 간주된다"

## (2) 타부의 배제 기능

- ▶ 힌두의 소를 신성시하는 관념→ 쇠고기 타부 문화→ 타부 문화의 정치화와 법제화
- ▶ 성스러운 것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
- ▶ 부정하고 위험한 것을 피하게 하는 것
  
- ▶ 사회 통합과 배제의 기능을 수행
- ▶ 사회 통합:
  - ▶ 개인이 집단의 일원임을 확인시켜 줌
  - ▶ 금기는 때로는 법률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조정하는 힘을 가짐(사회 통제)
  - ▶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중요
  - ▶ 타부/금기를 통해 한 집단은 다른 집단과 변별되는 정체성을 확보
  - ▶ '우리'라는 연대감 형성
  - ▶ → 타부/금기는 사회 질서 유지와 공동체를 통합하는 기능

- ▶ 배제의 기능: 외적으로는 질서, 내적으로는 정결 확보
- ▶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금기를 위반하면 배제: 정당/부당, 밝음/어두움, 정결/오염, 성/속 등
- ▶ 금기 형성자는 권력을 실현 → 금기는 권력,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용
- ▶ 금기 감시자는 대중매체, 경찰, 법원 같은 형식으로 제도화되기도 함
- ▶ →쇠고기 타부 문화는 지배 계층인 브라만 중심적 관습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배 계층의 타부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오염된 외부자로 간주되어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이 당연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3) 음식 타부 위반 대상의 경계 오류

- ▶ 쇠고기 육식 행위가 무슬림의 전유물?
- ▶ ① 고대 시대 힌두의 쇠고기 육식 습관 존재
- ▶ 소 보호 운동은 정치적-종교적 단체의 선전 활동으로 인해 중요성을 얻은 비교적 현대적인 관행
- ▶ ② 현재 힌두 상류층, 중간층의 육류 소비 증가
- ▶ 쇠고기 타부 문화의 위반은 힌두 상층 카스트에게서도 나타남
  
- ▶ 소를 낙농업 때문에 이용하는 폭력성은 배제?
- ▶ 낙농업을 위한 소의 희생은 묵인하는 모순

## 2) 낙인

### (1) 힌두의 무슬림 낙인찍기

- ▶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무슬림에 대한 고정관념 형성 과정과 낙인 찍기 역시 무슬림 타자화에서 중요한 전략임
- ▶ 낙인은 '정상'에 대한 불안한 집착에서 나타남
- ▶ → 내 안의 취약성을 숨기기 위해 다른 집단에게 낙인을 부과하여 상대적으로 나의 정상성과 우월함을 입증
- ▶ ex)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힌두는 인도의 본질로서, 무슬림은 공포, 분노,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시키려고 함
- ▶ 무슬림이 파키스탄 테러리스트에 동조함, 성적 포식, 과도한 번식
- ▶ 과도한 육류 소비, 동물 도살의 잔인한 관행 → 폭력적, 공격적, 잔인함
- ▶ 소를 숭배하지 않으면 anti-national로 낙인

- ▶ 근본주의자들은 내부의 결속을 위해 다른 집단을 희생양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
- ▶ → 특정한 소수자(집단)에게 '악마'라는 낙인 → 그 집단의 위험성을 과장 → 집단폭력을 통해 제거
- ▶ '낙인의 정체성'으로만 분류됨으로써 개인이 가진 개별성은 모두 무시됨
- ▶ → 낙인 찍힌 개인은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묵살되며 무시되는 인격체로 전락

## (2) 과장된 고정관념과 낙인의 오류

- ▶ 무슬림들의 폭력성과 잔인함 부각하여 힌두들에게 어린시절부터 무슬림에 대한 고정관념 내면화
- ▶ 쇠고기 식습관과 도살과 관련된 과장된 고정관념과 낙인의 오류
- ▶ ① 밀수와 도살은 동물에 대한 보살핌과 친밀함과 양립할 수 없다?
- ▶ ② 무슬림의 동물 도살에는 윤리적인 면 존재

### 3) 혐오

#### (1) 무슬림의 혐오 대상화

- ▶ 혐오:
- ▶ 1) 특정한 음식, 동식물 가공품 + 성, 죽음, 위생 등과 관련된 대상에 대한 거부 반응
- ▶ 2) 신체나 영혼의 평안을 위해 이방인에 대한 직, 간접적인 접촉회피의 반응
- ▶ 3) 사회적 질서의 보존을 위해 특정한 도덕적 위반자에 대한 처벌 반응
- ▶ 혐오는 구토, 설사, 헛구역질, 내뿔음, 싫어함, 비호감+멀리함, 내침, 격리시킴, 폭력, 박멸 등의 배제 행위와 연관

- ▶ 힌두 민족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무슬림에 대한 혐오
- ▶ 힌두의 신성시 되는 소를 도살하고 식용으로 이용한다는 것에 대한 혐오
- ▶ 육류, 도살, 타부의 위반 등으로부터 오는 혐오감
- ▶ "혐오는 특정 집단과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된 강력한 무기"
- ▶ → 혐오는 우리가 될 수 없는 존재, 동물성을 갖지 않은 불멸의 존재를 희망하는 것에서 기인
- ▶ → 진정한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에 우리와 다른 집단을 동물적 특성을 가진 인간으로 전락시킨다면, 우리 집단은 한층 더 동물성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
- ▶ 따라서 특정 집단을 격하시키기 위해 혐오의 속성들을 부과하고 이들을 혐오의 대상으로서 격리. 배제

## (2) 혐오 조장을 통한 평등한 시민권 박탈

- ▶ 힌두민족주의자들의 민족을 오염시킬 수 있는 존재를 제거할 수 있다는 환상
- ▶ → 자신들을 가장 위협하는 대상인 무슬림에 대한 속성을 과장, 왜곡
  - 무슬림에 대한 혐오 감정 조장
  - 혐오 대상은 국가와 다수를 위협하는 제거, 박멸되어야 할 대상인 해충 같은 존재 혹은 '호모사케르'(모든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죽일 수 있는 자)와 같은 존재로 취급
- ▶ → 비폭력, 경제적 이유 등을 내세워 정부는 다수(힌두)를 오염시키고 위협이 되는 존재인 소수집단(무슬림)에게 행사하는 폭력과 소외화를 정당화
- ▶ → 주권자에 의해 생명이 가치 있는 삶과 가치 없는 삶으로 구분되는 생명정치를 실현함으로써 인도의 세속주의의 위반과 헌법의 모든 시민에 대한 평등권에 대한 기본 권리 목살

## Ⅲ. 결론

- ▶ 힌두민족주의자들과 우익 정권은 음식, 타부, 낙인, 혐오의 감정과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권력층인 브라만 중심적 관습·쇠고기 금지를 기반으로 한 법을 실행하고, 이를 위반한 집단에 폭력을 가하고 생명을 빼앗는 행동을 묵인하고 용인한다.
- ▶ 음식, 타부, 낙인, 혐오 감정은 모두 자신/타자, 내부/외부, 정/부정, 깨끗함/더러움과 같은 이분법적 관념을 바탕으로 지배 계층이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정치권력과 지배 계층은 이러한 이분법적 기준 중 자신들의 기준에 벗어나면 적합한 시민에서 배제시키고 그 집단은 생명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로 간주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 ▶ 이러한 '적합한 시민' 혹은 '정상'의 범주에 속하는 기준이 다름 아닌 종교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배 계층인 브라만 이데올로기를 규범으로 함으로써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통제를 당연시한다.
- ▶ 따라서 쇠고기 타부 문화의 정치화는 무슬림 같은 소수집단에게 종교적 권리 뿐 아니라 신체적 행복의 권리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이는 모든 이에게 주어져야 할 평등과 존중이 목살된다는 면에서 인도의 세속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에도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인도와 한국의 헌정사 비교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 1. 서론

### (1) 양국의 지리적 유사성

인도와 한국은 반도 국가다. 다만, 인도는 그 면적과 대륙의 형성과정의 특징으로 반도라 부르지 않고 별도의 대륙으로 분류된다. 아대륙. 그렇지만 두 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북쪽이 대륙으로 열려있다. 우리는 만주벌판, 중국대륙, 러시아로 이어지지만, 인도는 아프카니스탄, 아랍, 중앙아시아, 중국, 러시아로 연결된다. 간혹 우리나라를 섬나라로 부르는 것처럼, 인도도 북쪽의 히말라야장벽과 파키스탄이라는 적대적 국가가 있기 때문에 북쪽의 육로overland 관문이 자유롭지 못하다. 전체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많았고, 안에서 밖으로의 침략은 적었다는 공통점도 보인다. 인도는 근대에 들어서 해양국가인 영국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한국의 경우는 또한 해양국가인 일본에 의해 침략을 당해 각각 식민지가 된 공통점이 있다.

### (2) 연구의 목적

인도와 한국의 헌정사를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시아는 제3세계 국가가 많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헌법이 발달한 나라가 현저히 드러나지 않는다. 한국은 오늘날 산업화와 민주화에서 모두 성공한 나라로 꼽힌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괄목할만한 나라가 되었다. 실제로 민주주의와 헌법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일본 외에 특별히 견줄만한 나라가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에 국한해서 보면 일본보다도 한국이 훨씬 앞서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고로 헌법재판이 활성화된 나라다. 따라서 헌법의 수준이 가장 높다고 추정해도 틀리지 않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북병으로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다. 인도에는 워낙 빈민과 문맹자가 많고, 카스트제도가 존재한다는 강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인도의 헌법발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관심이 적다. 제3세계 국가들이라면 한 번씩 겪었던 군부독재 정권 한 번 없었다고 해도 그저 우연한 것으로 치부하기 일쑤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한국보다도 훨씬 깊은 입헌주의의 뿌리와 경험이 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유도 없이 군부 쿠데타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일찍부터 문민정치가 확고하게 정착되었던 것이다. 독립 이후 인도의 정치인들이 보여주었던 헌법에 대한 존중심은 한국보다도 월등하다는 점이 발견된다. 한국이 아시아 최고의 헌법국가라고 자만하기에는 인도의 존재로 인하여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인도는 인구나 면적으로나 세계적인 규모의 나라다. 인도가 세계 최고 강대국 반열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 반면에 한국은 강소국이다. 한국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과 행운의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헌법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하여 세계사의 흐름을 알고 큰 교훈을 얻을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2. 비교의 대상

필자는 최근 한국과 인도의 헌정사적 비교연구를 간략히 진행한 바가 있다.<sup>29)</sup> 인도헌법에 관한 그동안의 지식을 토대로 간략한 연구와 고찰을 해보았지만 그 작업에서 인도 헌법의 특성과 인도인들이 보여준 헌법운영에서의 놀랄만한 우수성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하였다. 인도 헌법의 특징은 다른 헌법과 비교해서 그 형식과 내용의 다양성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인도 헌법에는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양립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내용이 제도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참으로 경이로운 지점이다. 세계 모든 나라들의 헌법을 두루 섭렵하고 있으며, 특히 영미법과 대륙법이 동시에 존재한다. 자본주의법과 사회주의법이 동시에 수용되었다.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이 병존한다. 특히, 의회주권원리와 사법심사제의 공존은 인도 헌법의 백미이다. 헌법운영에서도 제정과 공포에 이르는 과정, 그 이후 헌법의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적 점검, 지속적인 개헌을 통한 헌법변동과 결함에 대한 적응과 보완 등 헌법에 대한 존중이 한국과는 뚜렷이 대비될 정도로 달랐다. 인도는 헌법을 ‘목적’으로 받아들였고, 한국은 헌법을 정권연장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그 차이는 분명하다. 그래서 ‘헌법에 대한 충실성’(fidelity to the Constitution)의 면에서 볼 때, 인도 헌법은 아시아의 최고라고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연장선에서 인도와 한국의 헌법의 발자취를 찾을 필요가 생겼다. 이 작업은 향후 긴 시간을 두고 할 일이다. 그래도 가장 먼저 떠오른 두 가지 주제가 있었다. 하나는 식민통치 시대의 차이, 즉 영국의 인도에 대한 통치방식과 일본의 조선에 대한 통치방식이 어떻게 달랐는가를 알아보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양국의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방식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하나하나가 방대한 작업을 요하는 것이지만, 개괄적인 연구라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중에서도 이번 발제는 식민지 시대에서의 인도와 한국을 비교 고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 3. 영국의 인도 식민지배의 특징

### (1) Shashi Tharoo의 입장

정치인이자 문필가이고 외무장관을 역임했던 타루(Shashi Tharoor)는 2015년 Oxford Union이 주관한 ‘영국이 과거 식민지에 대한 배상채무’를 주제로 한 회합에서 매우 이색적인 발표를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끌었고, 특히 그의 저서 “암울했던 시대 - 인도에서의 대영제국 -”(An Era of Darkness - The British Empire in India -)는 그동안 잠잠했던 식민지 시대의 영국통치에 대한 회상을 인도인들에게 재점화시켰다. 이 책은 영국인들이 식민 통치 기간에 남긴 그동안의 긍정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논박하는 글을 썼다. 물론 분노의 마음으로 쓰기 보다는 시종 신랄과 경쾌, 진지와 위트를 섞어 기술했기 때문에

29) SNUAC, Diverse Asia 10호, 아시아의 정치: 정치체제와 지역성, 2020.9. 참조.

많은 독자를 매료시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타루의 설명을 일부 보기로 한다.

영국이 남긴 경제적 수탈은 벵골지방의 자생적인 고유한 산업기반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시작된다. 1800년대 초기에 이미 수공업자들, 무역업자들, 군인들과 상인들이 쇠퇴하고 농민과 사채업자(대금업자)로 변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영국의 지배로 인해 토지를 상실한 자영농민이 소작인이나 피고용자나 예농의 지위에 처하여 전체적으로 농촌의 성장 발전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인도의 빈곤 상황이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1750년 당시 인도와 중국은 세계 산업생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랬던 인도가 1947년 독립 시기에 이르러서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고 낙후되고 문맹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전락되었다. 다른 한편 영국은 동인도회사가 출범하던 1600년에 세계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었고, 당시 인도는 23%의 나라였다. 그 후 약 2세기를 지난 1940년대에 이르러 영국은 세계의 10%를 차지하는 국가로 성장한 반면, 인도는 가장 가난한 제3세계국가로 추락한 것이다. 1757년과 1900년 사이에 영국은 1인당 국민총생산이 347% 증가했으며, 인도는 고작 14% 증가했다는 설명이 있다. 1900년부터 1947년까지의 인도 경제성장은 1% 미만이었다. 독립 이후 인도는 1950년에서 1980년까지는 약 1.3%씩 성장했고, 1981-90은 3.5%, 1991-2000은 4.4%, 2001-2010은 평균 7.8%의 성장률을 보였다. 식민지 시대와 독립이 시대 간의 대조를 보여주는 통계들이다. 영국 식민지 직후 문해율은 16%였으나 현재는 72%까지 상승했다. 전기가 인도에 들어온 것은 1890년대였으나 독립 때까지 영국은 전국 64만 촌락 중에서 1500개 촌락에만 그 혜택을 주었을 뿐이다. 독립 이후 같은 50년 동안 인도는 320배에 해당하는 전기 보급률을 보여주었다. 이런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영국은 인도인들의 안녕과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영국은 자치제를 한다고 하면서 인도에 영국의 봉건제적 농촌문화를 이식시켰다. 그래서 인도의 고유한 농촌문화를 파괴시켰다. 영국은 영주에게 종속된 농민들의 모습을 인도에 가져왔다. 제국의 간접통치가 수입되었고, 영국의 젠틀맨, 기사와 같은 계급이 인도에 이식되었다. 영국이 시작한 'Rai Bahadur'와 작위제가 그 예다. 이렇게 영국은 큰 비용과 수고를 들이지 않고 동조하는 비전문가 인도인들에게 맡겨 그 제도를 시행하였다. 인도인으로서 숙련된 정치적 권위를 획득하려는 전문가층을 육성할 필요가 없었다.

영국식 제도는 인도에 장기간의 손실을 초래했다. 역사학자 Jon Wilson은 인도는 본래 동적인 경제 정치질서를 가지고 있었다. '작은 사회들로 구성된 사회'(society of little societies)로서 통치자와 피치자는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규범화된 그런 사회였다고 말했다. 인도의 촌락은 완전고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존적 공화국은 아니었다. 그들은 상호연결되었고 교류가 있었다. 이것이 인도산업의 파괴로 말미암아 인도인들은 할 일을 잃고 농사에 집중해야 했고, 농업사회가 심화되었고 햇볕은 농민의 삶으로 귀결되었다.

또한 타루는 영국은 인도에 대한 분리통치(divide and rule) 방식으로 인도인들을 분열시켰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비록 민주주의와 자치제와 법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인도인들은 참여에서 소외되었고, 부차적인 역할만 담당했을 뿐이었다. 타루는 곳곳에서 영국이 남겨놓은 일정 부분의 성과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인도에게 끼친 많은 해악의 총 합산은 얼마나 될까? 어느 전문가의 계산을 인용해서 아마도 3조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이것은 영국 2015년 한 해의 국민총생산액보다 큰 금액이다. 타루는 이런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다만 영국이 200년 동안 제국통치에 의해 인도에 미친 손실을 속죄하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향후 200년 동안 매년 1파운드씩 인도에게 지불하는 방식

을 제시했다.<sup>30)</sup>

## (2) 타루의 견해에 대한 소견

이제까지 인도인들은 영국의 식민통치에 대해서 분노에 찬 비난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에 비해 한국인들은 일본 식민지 통치를 강하게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배상문제는 정치 현안이기도 하다. 국민들 사이에서 친일부역 행위라는 낙인은 가장 심한 비난일 것이다. 최근에는 일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토착왜구라 비난하여 사회적 표현조차 억압하는 분위기다. 이렇듯 한국은 일본에 대해 극심한 배일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하면 인도인들은 한국에 비해 훨씬 장기간 영국 식민지 지배를 당했음에도 어떻게 아무 비난도 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남겨왔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으로 인도인들의 성격이 정말 양순해서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본의 식민통치가 영국에 비해 워낙 행패가 심해서 그렇다든지, 혹은 워낙 가까운 이웃 국가 사이에서 벌어진 침략 행위라서 한국인들의 분개심이 더욱 강해진 것이라든지 하는 일반적인 해석이 많이 들었다. 이렇듯 잔잔하던 문제에 대해서 타루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인도인들도 종주국이었던 영국에 대해서 피해의식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다만 타루의 상징적 배상 방식의 제안은 인도인들은 한국과 달리 배상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알게 해 주었다. 실제로 인도는 지금도 영연방(British Commonwealth)의 한 구성국으로서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왜 인도인들은 한국인들과 다르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외국인으로서 인도 헌법학의 역사에 대한 지식도 짧은 필자가 풍부한 자료와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한 타루의 설명을 평가하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다. 다만, 영국의 식민지통치를 바라보는 시각(perspective)의 측면에서는 다르게 볼 여지는 많이 있다. 역사는 입각점에 따라 얼마든지 재편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루의 설명도 소개하면서 또한 다른 관점에 서서 식민지 시대에 대한 양국의 헌정사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 4. 식민지 시대: 암울했던 인류의 과거사

식민지 시대를 겪었던 우리로서는 듣기만 해도 답답하고 암울하다. 그런데 암울한 시절은 비단 식민지시대 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를 적나라하게 들여다 보면 모두가 그러하다. 대부분의 인류의 역사는 암울과 어둠으로 가득차 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늘날 여기까지 도달한 것이 인류다. 과거에 비해 많이 밝아지고 행복해진 오늘날의 사회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과거사를 돌아보고 평가할 때는 인류가 걸어왔던 시행착오의 역사를 감안하지 않고 현재의 우리 입장에서 가차 없이 판단을 가하게 되면 일면 수긍하면서도 다른 한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논의가 계속된다. 역사 판단에서도 관용이 필요할 때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균형감이다. 과거를 너무 가혹하게 재단하지도 않고 또 너무 기정사실화 시키지도 않는 한에서의 균형감이다. 예컨대 법과 관련해서도 ‘법은 권력자의 피지배자에 대한 착취수단이다.’라는 표현은 과거 역사에서는 많은 경

30) Shashi Tharoor, An Era of Darkness, Aleph, 2016, preface.

우 타당하다고 보인다. 군주주권시대를 넘어 시민국가 시대까지도 법은 지배자의 착취수단으로 봐도 이해가 간다. 그때는 국민들이 통치에서 배제되었거나 혹은 참여한다고 해도 제한적인 소수자만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는 세계인권선언과 후속 인권규약이 제정되고 민주주의는 더욱 확대심화되었기 때문에 법을 지배자의 착취수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크게 수긍할 수 없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법과 헌법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너무 불공평하고 불합리로 가득찬 사회로 규정될 수도 있다.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보다 더 발전된 수준을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상의 해답이 없다.

15세기 이후의 유럽과 세계의 풍조를 살펴보자. 유럽의 항해시대 이후 인류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게 변화했고, 군주나 개인이나 이익(profit)이라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발명하면 그것이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면서 더 많은 사람들은 멀리멀리 가서 신기로운 것을 찾아오고, 아니면 깊이깊이 연구해서 새로운 것을 발명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자유주의 가운데서 자본주의는 시작되었고, 농촌에 기반을 둔 봉건제는 붕괴되어갔고 도시의 길드를 중심으로 상업자본, 산업자본으로 발달해가면서 시민국가가 종전의 군주국을 대신하게 되었다. 서양에서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기점으로 국가 단위의 시대가 들어섰다. 그리고 주권 국가 중심의 법체계가 발달했다. 특히 국제법의 발달이 이런 배경하에서 이루어졌다. 국제법은 서구 국가들 사이에서는 평등한 기준으로 제시되었으나 서구가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들과 마주했을 때는 불평등한 것으로 바뀌었다. 서로 납득되지 않는 규범의 대결에서 서구 국가가 힘으로 이겼다. 내용적으로도 서양의 논리체계는 크게 비난할 바가 없었다. 이렇게 되면서 서구의 제국주의가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 최근의 정치학자나 역사학자들은 제국과 제국주의를 구분한다. 제국주의는 무력에 의한 타국에 대한 정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적이지만, 제국은 꼭 부정적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제국이 확대되는 것은 무력에 의해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제국이 보유한 문명의 상대적 우월성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이다. 제국의 발달된 문명은 주변 국가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자연스럽게 제국의 영역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물론 확대된 제국은 나중에 관리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자멸하게 되고 그렇게 역사는 다시 반복해 왔다고 설명한다.<sup>31)</sup> 돌이켜 보면 이런 설명이 비교적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와 국가는 좀 더 문화문명이 발달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도태의 수모를 겪을지도 모른다.

제국주의의 극성기가 특별히 19세기 중반부에서 20세기 전반부까지 펼쳐진다. 세계의 땅은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반분되다시피 점령당한다. 제국주의도 처음부터 전쟁을 한 것은 아니다. 당시의 강대국이란 이렇게 멀리 가서 새로운 것을 획득해서 팔 수 있는 국가를 뜻하였다. 한 마디로 모험적이고 역동적인 국가였다. 그저 자국이나 자기 회사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전념하다가 보니까 어느 덧 제국과 제국이 대결국면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무력의 충돌이 벌어지고 전쟁이 발발한다. 바로 제국주의 시대는 전쟁이 끊이지 않던 그런 시대다. 돌이켜 보면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될 그런 시대였다. 제국에 들지 못한 나라들은 강대국의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대체로 인도와 한국은 희생양이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타루의 논지에 따르면 만약 영국의 침략이 없었더라면 인도는 훨씬 더 많은 발전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영국의 침략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인류의 역사였다면 무엇으로 답변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최선의 해답은 인도가 제국과 같은 강대국이되 제국주의는 하

31) 헤어프리트 민클러, 공진성 옮김, 『제국, 평천하의 논리』, 책세상, 2015.

지 않고 스스로의 발전을 해나갔어야 했다고 말해야 한다. 다른 제국들이 침략해와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강대국이어야 한다.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16세기 이후의 인도에 서유럽이 침투해오지 않았으면 당연히 북방의 민족들 즉 오스만 터키나 몽골족이나 청나라나 러시아가 남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러시아의 확대는 대단했던 시기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의 국가지만 이 땅이 당시 러시아의 확대 속에서 얻어진 소산이었다. 유럽의 맹주였던 영국으로서는 러시아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전략적으로도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인도지역으로 군사력을 이동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동인도회사로 시작되어 식민지로 귀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닳혔을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영국이 1600년부터 시작한 동인도회사는 애당초 식민지를 목적으로 만든 회사가 아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와 같은 선형 항해국가들의 예에 따라서 유럽에서 특수물을 누렸던 향료, 차와 같은 것을 수입해서 큰 소득을 얻고자 했던 것이 주 목적이었다. 그리고 인도가 최종 목적지도 아니었다. 말라카반도를 넘어 인도네시아의 열대 군도를 향했던 것이다. 그러다 중간기착지였던 인도의 몇몇 도시에서 인도와의 무역이 시작되면서 인도인들과의 접촉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동인도회사와 당시 무굴 인도인들과의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판의 준거법을 어느 나라의 것으로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처음에 이슬람법으로 했지만 영국은 이를 바꾸도록 만들었다. 영국법이 준거법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영국법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또한 분할통치라는 것도 특별히 지배자의 통치방식이라고만 볼 것은 아니다. 힘 센 세력이 들어오면 피지배 지역은 반드시 분열이 되고 일부가 힘 센 세력에 빌붙게 되어있다. 그래서 분할통치는 시작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이 길들여지면 이후의 통치자들은 이런 방법을 일상적으로 적용시키는 나쁜 사례를 많이 보게 된다. 인도에서의 무슬림과 힌두 사이의 분할통치도 과연 영국이 먼저 시작한 간계인가 혹은 무슬림 쪽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국과 긴밀한 타협을 시도한 것인가는 선후를 구분할 수 없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인도인들에게 외래인들은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해보게 된다. 인도라는 큰 반도에는 북쪽 대륙으로부터 일찍이 아리안족이 침입해 온 것으로 안다. 기원 3세기에는 알렉산더의 침략이 있었지만 그대로 회군하였다. 그 후에 7세기 이후 이슬람족들의 이동이 있었고 결국 무굴제국까지 이어진다.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인도인들은 과연 이슬람왕국의 침입을 어떻게 생각했을까가 궁금하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외적의 침략의 연속이었다. 한국은 북에서 온 몽골이나 거란족, 만주족의 침입은 외적이라고 보고 한사코 방어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 인도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런데 인도의 경우는 이런 역사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누가 와도 강물이 흐르듯이 또 지나가고 말 그런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어떤 정복자가 왔다고 해도 좀 있으면 소멸하고 다시 다른 정복자가 와서 바뀌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런 점에서 인도는 중국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같다. 중국도 지배자는 지속적으로 많은 교체가 있었다. 한족을 중심으로 보면 외부 세력이 중국을 지배한 경우가 오히려 많았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역사로 계산된다. 다만 중국에서는 한족의 지배를 더 강조하는 것 같고 그것이 현대 중국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한족의 중화주의가 심하다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중국과 같은 힌두인들의 우세를 특별히 강조했던 것 같지는 않다. 힌두의 민족의식이라는 것은 최근 역사에서나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영국은 외국의 이민족 침략자라기보다는 인도의 역사에서 무수히 명멸했던 여타 정복왕조와 동일한 지배자(Raj)였다고 볼 수 있다. 인도인은 우호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영국의 지배를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인

도의 민족해방 투쟁의 과정은 민족과 언어, 지역성의 장애를 뛰어넘어 보편적인 목적으로 자유와 독립을 설정하고, 이를 쟁취한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대 정치적 의미에서 인도의 민족해방운동은 인도 민족을 창조한 것이다.<sup>32)</sup>

## 5. 명목헌법과 규범헌법

역사 속에서 많은 경우 민주주의와 헌법은 전제와 독재정치를 위장하는 편리한 간판이 되었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실질은 박탈당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현대 전제주의적 권력보유자는 헌법을 자유의 도구로부터 노예화된 도구로 변화시켰다. 여기에 헌법과 헌법현실의 괴리가 얼마나 벌어져있는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규범헌법, 명목헌법, 장식헌법이 있다. 칼 뢰벤슈타인(Karl Loewenstein)이라는 히틀러 시절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학자로 비교헌법학자라 할 수 있다. 그가 집필한 1956년의 저서에서는 서양중심국가들은 규범헌법이라고 보았고, 히틀러의 독일이나 스탈린의 소련의 헌법은 장식적 헌법이라 했다. 나머지 헌법국가들은 주로 아시아의 신생국가들, 라틴아메리카의 오래된 국가들인데 이들 중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명목적 헌법국가들로 분류했다. 다시 말해 헌법전은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헌법의 규범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국가들이다. 장식적 헌법이란 애당초 헌법을 시킬 생각이 없었던 정권을 지칭했다.

바로 여기에서 인도와 아시아 몇 개국의 경우 뢰벤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영국의 훈련을 받은 인도, 실론, 아일랜드 및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들도 그들이 서구의 영향을 받았고, 때로는 매우 복잡하기도 한 헌법의 용의주도한 준수를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경주했고, 그 결과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 이와 동일하게 영국의 훈련을 받았지만, 버마와 파키스탄 및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헌법은 아직도 명목론적 단계로부터 규범적 단계로 발전하지 못한 것 같다.”<sup>33)</sup> 뢰벤슈타인 교수의 말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워낙 탄탄한 학자인데다가 세계대전 이후 모든 나라가 경황이 없었던 1950년대 당시의 진기한 기록이라고 생각되어 인용한 것이다. 서양 학자의 눈으로 보더라도 인도는 분명히 헌법에 대한 일정 정도의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 것은 분명하다. 뢰벤슈타인의 책에서는 한국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1970년 대 이후 한국의 헌법학자들 스스로 우리나라는 명목헌법 국가로 분류하였다. 문민정부 이후부터 이와 같은 설명은 어느덧 사라졌고,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 지수가 세계 20위권까지 진입한 모범적인 규범헌법국가로 자리잡았다.

인도의 헌법발전이 이미 독립 직후에도 일정 정도 인정받고 있었다는 점은 당연히 인도가 식민지배 당시부터 일정한 헌법에 대한 의식, 인식, 문화,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추리로 연결된다. 식민지 종주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피지배국의 입장에서는 그 시대는 암울하고 악몽과 같았을 것이다. 그래도 영국은 당시 민주주의 정치와 입헌주의, 그리고 산업화 부문을 선도했던 세계 최강국이었다.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배 방식은 그 이전 스페인이 신세계에 진출하여 벌인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간접통치의 방식에 의한 경제수탈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폭력이 완화된 지배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완력보다는 자치와 법치 위주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본다. 모든 것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영국의 교육기관 설립, 행정

32) 최재희, 인도 민족운동과 정치참여 - 인도국민회의의 분열을 중심으로 -, 제국주의 시기 식민지인의 정치참여 비교, 선인, 2007, 72-73쪽.

33) K. 뢰벤슈타인, 김기범 옮김, 현대헌법론, 교문사, 1973, 167쪽.

과 사법제도의 도입, 의회와 선거제의 실시, 지방자치제의 시행이 확대되고 동시에 일정한 수의 인도인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영국과 서구의 문명을 배우면서 인도인들의 지식층이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지식층이 된 인도인들은 물론 중산층 계급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들이 국민회의의 중심세력을 이루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독립후에도 한 동안 집권세력으로서 인도를 운영하였다. 인도의 보다 많은 참여와 자치, 더 나아가서는 인도의 완전한 자치를 위한 독립의 목소리를 높여갔지만 영국은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혁해나갔을 뿐 독립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영국의 민주적이고 법치주의를 중심으로 한 제도를 둘러싼 논쟁과 투쟁전개는 이에 참여한 많은 인도인들이 영국의 제도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 6.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비교

일단 영국이나 일본 모두 제국주의에 기초를 둔 식민주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정치적으로 억압했던 면에서 암울했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와 한국의 독립이후의 헌정사의 발전과정을 보면 식민지 시대의 경험이 그 이후의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영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의 특징과 식민정책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 (1) 영국의 경우

영국의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의 시대조류는 자연과학적 사고가 지배하던 시대였고 그 연장에서 인종주의가 팽배하던 시절이었다. 다윈의 진화론도 이에 가세하였다. 제국주의는 서양인들은 종래 가지고 있었던 문명화의 사명이라는 구 사상과 인종주의라는 신 사상의 결합물이었다. 이런 시대적 논리를 기초로 해서 제국주의는 무제약적으로 활약했던 것이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무지몽매한 행위들이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서도 보다 바른 길을 모색하는 학문적 경향은 있었다. 진화론자 중에서도 자유방임주의자인 스펜서와 같은 이는 식민지배와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가졌다. 제국주의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지배자도 결코 종속관계의 질곡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제국주의는 영국의 자유주의적 전통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보았다. 또한 제국주의에 따르는 군사형 사회는 사회진화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군사형 사회에서 산업형 사회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야만화에 다름 아니었다.<sup>34)</sup> 칼 피어슨Karl Pearson과 벤자민 키드Benjamin Kidd의 사회진화론도 출현했다. 페비안 사회주의자들도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에 큰 관심을 보였다. 페비안 협회의 시드니 웹, 버나드 쇼는 확고한 제국주의자였다. 버나드 쇼는 1902년 Fabianism and Empire 발표를 통해 글래드스톤 식의 낡은 자유주의적 비전을 비판하고 인류문명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쇼의 이런 생각은 키드의 사회진화론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듯 당시의 제국주의자들은 사회개혁을 통해 도시 하층민의 빈곤해소, 국민 건강증진이 제국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급선무로 보았던 점에서는 동일했다. 키드는 우생학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진화에서 도덕과 윤리를 강조한 키드는 형재애는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 확대되어 갈 것이며, 인간의 도덕적 의무감은 처음에는 동종인 인류에게 그 다음으로는 모

34) 염운옥, 영국의 식민사상과 사회진화론, 36-37쪽.

든 생명체에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듯 사회진화론은 식민주의의 논거가 되기도 했고 동시에 탈식민주의의 방향까지도 제시하고 있었다.

한편 영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발달은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달리고 있었다. 이 말은 군주제를 대신해서 의회제가 가장 먼저 발달했고(1689, 권리장전), 법의 지배(rule of law)가 확립되어(1628, 권리청원) 군주 조차도 의회법과 판례법의 지배를 받는 전통이 수립되었던 것이다. 곧 시민의 주권시대가 열렸다는 것이다. 국민주권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표자에 대한 선거권은 제한선거로 시작되었지만 선거권 투쟁으로 지속적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었다. 영국은 노예제도로 가장 부를 많이 축적한 나라에 속했지만 동시에 노예무역을 가장 먼저 폐지했고(1806), 노예제 폐지도 어떤 나라보다도 앞섰다(1833). 미국보다도 30여년 앞선 일이었다. 이것은 당시에는 영국이 미국보다도 더욱 선진국이었음을 알려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민주주의나 법의 발전이란 것도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또한 미숙한 단계에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자유주의에 기초를 두었던 영국은 국내의 발전 정도를 식민지역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인도의 경우도 영국의 민주주의와 법발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중산층의 지식인들이었을 것이다. 인도에서 이 지식인층(literati)의 역할은 중요하다. 당연히 국민회의의 지도자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 이후의 인도 발전을 이끌어 간 것이다. 특히 간디에 대한 폭넓은 민중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독립 이후 계층간 불만을 시정한다는 명분으로 대두하는 군사쿠데타의 발발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은 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 (2) 일본의 경우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유럽화한 나라다. 시세를 판단한 결과 빠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서양에게 점령당할 것이라고 보고 개국을 단행하고(1868), 서구식 근대화에 착수했다. 법제도도 개혁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일본은 당시의 최고 선진국이었던 영국의 것을 모방하고 답습했다. 하지만 정치와 법제도는 영국의 그것과 너무 큰 격차가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독일의 비스마르크 체제를 따르기로 했다. 대체로 후발국가들의 행보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명치헌법이 제정되었다(1889). 명치헌법은 외견적 입헌주의 헌법이었다. 명치헌법의 제1조는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라고 하여 국가의 통치권과 주권이 천황에게 있다는 것을 규정했다. 제3조에서는 “천황은 신성하므로 침범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제4조는 “천황은 국가의 원수이고 통치권을 총람하며 이 헌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행한다.” 즉 천황의 천황에 의한 정치였던 것이다. 다만 천황은 인민을 마음에 두고 정치를 한다는 허위표상으로 유도하였다. 이렇게 해서 천황제를 유지하기 위한 단속입법이 생겼고 국민은 잔혹한 탄압을 받게 되었다. 구형법상의 황실에 대한 죄와 치안유지법(1925)이 대표적이다. 천황에 대한 대역죄와 불경죄가 엄하게 다스려졌다. 1947년 제정된 현재 일본헌법은 국민주권이 되었으므로 천황은 더 이상 주권자가 아니고 헌법 제1조에 “천황은 일본국 및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나 시민이 아닌 신민이란 용어가 생겨났다. 신민(臣民)이란 명치정부가 만들어 낸 말인데, 천황의 통치에 복종하는 일본인의 총칭이다. 그러므로 흥정헌법에서의 신민의 권리란 헌법에 의해 천황이 준 권리를 말한다. 정확히 말하면 신민이라면 권리가 있을 수 없다. 선거권은 제한선거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되어 갔다. 신민 중에서 직접국세 15엔 이상을

납부하는 자에게 중의원선거의 자격을 부여했는데, 이는 인구의 1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선거자격은 1900년에는 10엔 이상으로, 1919년(대정8년)에는 3엔 이상 납부하는 자로 인하된다. 일본의 자본주의도 발전해서 중소자본가도 많아졌다. 동시에 사무노동자, 변호사, 교사, 예술가 등 중간층이 많아졌고, 도시에서의 유권자수가 많아졌다. 이런 변화가 신민의 시민의식의 양성에 기여하며 대정데모크라시의 기운을 북돋아 놓았다. 또한 근대의 시작이라는 명치유신 직후 오히려 정교일치가 명령되었고(1870) 이때부터 신도(神道)는 반국교화해서 보호를 받았다. 일본 특유의 전근대적인 현상이 초래되었다.<sup>35)</sup>

## 7. 정리

식민지시대를 바라볼 때 함께 떠오르는 단어는 오리엔탈리즘이다.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동양인들은 당연히 기분 나빠한다. 서양인들의 동양에 대한 선입견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바른 지적이라면 받아들여야 동양의 발전이 있으리라고 본다. 사실 식민지 이후에 인도나 한국이나 이런 서양인들의 지적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일어난 것이다.

1700년대 스코틀랜드 문예부흥기가 있었다. 스코틀랜드 지식인들은 우리가 상정하는 시민사회에 철학과 정치를 준비한 사람들이다. 스코틀랜드 지식인들은 근대 학문과 역사발전의 단계를 연결시키고자 했다. 대체로 그들은 인유 사회를 진보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지만 순환하는 사회, 변화가 전혀 없는 사회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기 유럽, 오리엔트, 기타 미개민족을 보기로 들었다. 이 경우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회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제각기 다른 학문체계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근대 사회과학은 시민사회를, 동양학(Orientalism)은 아시아사회를, 인류학은 미개사회를 관찰할 수 있는 학문체계라 할 수 있다.<sup>36)</sup> 인도나 동아시아 사회가 근대 시민사회 또는 '세련된 사회'(polished society)로 이행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정체된 사회라고 주장했다. 당시로 봐서는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

35) 이등정기 편, 구병삭 옮김, 『현대일본국헌법론』, 법문사, 1983.

36) 이영석, 『지식인과 사회』, 대우학술총서 609, 아카넷, 355쪽.